



야고보서 강해

삶으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

안병호

삶으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

이 책은 유튜브 채널 <성경과 문화 연구원>에서 연재한
야고보서 강의 노트를 정리한 책입니다.

PDF 형태의 책은 무료로 제공되으나, 읽으시는 분 마다
<http://www.antiochrc.org/> 에서 다운받아 가시기를 바
랍니다. 제본된 책을 원하시면 onmaeum1@gmail.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경과 문화 연구원”을 검색
하시든지, 아래의 QR코드를 통하여서 강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_____

발행일 : 2022년 5월 20일 지은이 : 안병호 출판사 : 성경과 문화 연
구원 출판사 (onmaeum1@gmail.com)

목차

1	서문	1
2	첫번째 서론 - 야고보서에 대하여 (야고보서 1:1)	3
3	두번째 서론 - 성취의 비결 (야고보서 4:1-3)	9
I	야고보서 1 장	14
1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야고보서 1:2-4)	15
2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야고보서 1:5-8)	30
3	가난과 부의 시험 (야고보서 1: 9-11)	47
4	시험과 유혹 (야고보서 1:12-18)	58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16-18)	70
6	말씀을 듣는 자의 복 (야고보서 1:19-21)	76
7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 (야고보서 1:22-25)	83
8	경건한 자의 복 (야고보서 1:26-27)	89

II	야고보서 2 장	94
1	차별대우 (야고보서 2:1-7)	95
2	최고의 법, 이웃 사랑 (야고보서 2:8-13)	101
3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14-20)	107
4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21-26)	112
III	야고보서 3장	119
1	혀를 길들이라 I (야고보서 3:1-5a)	120
2	혀를 길들이라 II (야고보서 3:5하-12)	127
3	두 가지 지혜(야고보서 3:13-18)	133
IV	야고보서 4장	140
1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 (야고보서 4:1-6)	141
2	겸손의 축복 (야고보서 4:7-10)	148
3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4:11-12)	155
4	장래에 대한 인생 계획 (야고보서 4:13-17)	162
V	야고보서 5장	172
1	부의 유익과 위험 (야고보서 5:1-3)	173
2	부에 대한 책임 (야고보서 5:4-6)	179

3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길이 참아야 하는가? (야고보서 5:7-10)	185
4	농부처럼 재림을 소망하며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7b-9)	192
5	선지자들과 읊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5:10-11)	198
6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가? (야고보서 5:2)	204
7	당신의 개인 기도 생활을 어떠한가? (야고보서 5:13)	210
8	교회 장로들의 중요 사역 (야고보서 5:14-16)	216
9	시대를 살린 엘리야의 기도 (야고보서 5:17-18)	222
10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19-20)	228

1

서문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엄청난 보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보물을 건져 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 필자는 예수를 믿게 된 후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누리며 살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을 바다라고 생각하면 멀치 몇 마리를 건져 낸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야고보서를 연구하여 유튜브로 방송했다. 이 강의 내용을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내 아들이 편집하여 온라인 전자 책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 책을 내려 받아 읽을 수 있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에, 그의 제안대로 전자책을 만들기로 했다. 단순히 야고보서를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기보다, 많은 기도중에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유익을 서로 얻고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삶을 통해서 이해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보여 주는 일”이 매우 부족하기에,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나의 50년 이상 목회에서 경험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간증을 많이 삽입하였다. 때론 나의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삶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체험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독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적용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가 되길 바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나 의 목회 사역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차례로 출간하고자 한다. 책으로서 세련미는 부족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복음의 진리가 조금이나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독자들의 아낌 없는 비평과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비판이 앞으로 나 의 목회 사역의 성경 연구를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온 심혈을 다하여 이 야고보 방송을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방송되도록 촬영과 편집에 온 심혈을 기울여 준 박이래, 강규현 형제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또한 예리한 비판과 독자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방송하도록 도와준 내 아내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부족한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좋은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바쁜 연구 생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한국에 와 이 일에만 매달려 전자책을 출판하게 된 내 아들에게도 감사한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많은 독자들의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

첫번째 서론 - 야고보서에 대하여 (야고보서 1:1)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 절하 했다. 그 이유는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강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한 것이다. 살아 있는 나무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와 잎사귀는 그 나무가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된다. 구원받을 믿음도 마찬가지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행함이 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다는 것은 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I. 저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1:1). 이 구절에서 이 서신서를 쓴 저자가 야고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본문에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1.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요한복음 7:5).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회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후 62년 순교하기까지 줄곧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였다. 바울은 야고보를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한다(갈라디아서 1:19, 2:9, 사도행전 21:18). 베드로 역시 야고보를 교회 지도자로 인정한다(사도행전 12:17). 또한 그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회의의 의장을 맡기도 했다(사도행전 15:13-21).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친히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린도전서 15:7). 이 서신서에 명령형이 54회나 반복한 것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엿볼 수 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2.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외형적인 어떤 업적이나 신분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울도 그의 서신의 서두에서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밝힌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것이다.

3.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기도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그는 기도를 강조할 뿐 아니라 스스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약대(낙타)의 무릎을 가진 인물”로 평가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폐북에서 평소 존경한 한 젊은 목사님이 1년 6개월쯤 후에 은퇴하여 자기 소장의 책 1만 권을 가지고 시골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매일 5시간 기도, 5시간 독서, 2시간 글쓰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는 이런 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II. 수신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1:1). 이 서신의 수신자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밝히고 있다. 열두 지파는 유대의 전통을 물려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한 듯 하다.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흠어져서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방에 흠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III.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선교를 위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이다. 야고보서는 흔히 “파레네시스”라는 문학 장르로서, 편지 형식으로 윤리적 교훈을 주는 글이다. “파레네시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이네시스”(parainesis)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충고”, “상담”, 또는 “권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교리를 먼저 말하고 다음에는 윤리로 결론을 내린다. 이에 비해 야고보는 처음부터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처럼 윤리적인 책으로서 특징을 가진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

1. 유대인의 책이면서 기독교적이다.

이 편지에는 유대인의 독특한 사상이 배어 있다(1:1, 2:2 참조).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1:25, 2:8-13, 4:11-12). 구약을 권위 있는 말들을 인용하고(2:8, 11:23, 4:6, 5:11), 아브라함, 라합, 욥, 또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영웅들을 믿음의 예로 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권고할 때는(1:27) 마치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

이 편지는 유대인의 편지이면서 또한 철저하게 기독교적이다. 예수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1:1), 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2:1) 등의 표현은 예수의 부활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5:7-9)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회”(5:14)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야고보의 편지가 예수의 가르침을 반영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맹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문제, 화평케 하는 문제 등의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 수훈과 유사한 점이 야고보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유대인의 책이면서 기독교적이다.

2. 윤리적인 교훈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많이 나온다. 1:18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게 된 근거로서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긴 바 되었으며(1:21),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풍성하게 해 주시고(1:5, 3:17),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게 하신다(4:5). 야고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강조한다.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4: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형제를 저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요(3:9),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요케 하기 때문이다(2:2-6). 불확실한 미래를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4:13-17). 또한 하나님과 친구가 되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조한다.

IV.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를 알고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까워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풍성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의 깨끗한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차별성을 보여 준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야고보가 전해 준 메시지는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 몇 사람만이라도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3

두번째 서론 - 성취의 비결 (야고보서 4:1-3)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021년 8월 20일, 성경과 문화 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첫 방송 멘트를 이렇게 시작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야고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난 몇 달 동안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하는 비결입니다. 원하는 바를 성취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취할 때 큰 기쁨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산다.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성취를 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다.

1. 성취하지 못한 이유

네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욕심을 내면 얻지 못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욕심을 내서 무엇이든 성취하고자 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 일수록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왜 욕심이 없냐? 욕심을 좀 가져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욕심을 낸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라.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얻는 경우가 결코 많지 않다.

둘째, 시기하면 얻지 못한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시기한다고 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도다”고 하였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쏟아 얻고자 한다. 처음에는 좀 얻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셋째,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가? 자기의 노력과 자원으로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의 자원과 노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능력이 많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하기 쉬운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은 모든 것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하나님께 구하지만 잘 못 구하면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지만 결코 얻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얻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2. 성취의 비결

첫째, 하나님께 구해야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은 너희가 구하면 얻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욕심을 내고 시기하는 것은 제한된 것에서 서로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구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인간의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음이란 불신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성취하며 살아 가고 있다.

둘째, 하나님께 구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인간은 죄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거듭난다고 말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태어남을 의미한다. 영적인 태어남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은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옛사람, 옛 자아가 있어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윌리엄 케리가 말한대로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이 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고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아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면 성취하지 못한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수 없는 일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야고보서를 강의하게 되었다.

Part I

야고보서 1 장

1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야고보서 1:2-4)

1: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많은 경우에 넘어지기 쉽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야고보는 3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다.

2절에서 보면 "여기라"는 것이고, 3절에서는 "앎"이라는 것이고, 4절에는 "이루라"는 것이다.

1. "여기라"-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1:2). 여기서 시험은 환난을 의미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넘어진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다. 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1:3). 여기서 시험은 결코 우연히 받게 된 것이거나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필요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성숙한 신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고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베드로전서 4:12).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남보다 불행해서 환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미워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야 한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환난을 당하면 환난은 결코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고 인내와 기쁨을 갖게 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 같이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죄가 있어서나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해서 주신 환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 위대한 신앙을 얻게 되었는가 알 수 있다. 바울을 보자.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는가?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자.

고린도후서 1: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

고린도후서 11:2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 중의 사도가 된 것이다.

우리는 모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동안 죽을 위험 가운데 숨어서 자랐다. 그가 40이 된 후에는 민족을 돌아보려다가 그 신분이 탄로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환난을 당했다. 또한 그가 백성을 출애굽시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가?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앙이다.

요셉을 생각해 보라.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요셉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다윗을 생각해 보자. 그는 사울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많은 환난을 당했다. 나중에는 사울에게서 도망 나와서 더욱 많은 환난을 당했다.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지방에서 피하면서 또한 얼마나 죽을 위험을 많이 당했던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중 많은 환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그는 성숙한 인격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야고보는 당시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 이들이 당한 시련과 핍박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안 바이다.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 네로 황제 때와 같은 박해가 10번

이상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한 환난이 결코 기죽을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진 것으로 알고 기쁘게 여기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다.

2.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알라”는 것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1:2-3). 우리말로 “앎이라”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문에는 1절은 “여기라”는 말로 시작하고 2절은 “그리고 알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덴 매카트니라는 학자는 이것을 “그리고 알라”로 번역했다. 그리고 알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이것을 명령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 나온 명령형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한다.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준비한 후에 명령을 한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명령형 앞에는 서술형이온다”(Indicative comes before Imperative).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령형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명령대로 행할 때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명령은 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원수를 좋아하라”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뭐가 다른가? 원수를 좋아하라는 것은 감정이다.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해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큰 희생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최고의 유익을 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일지라도 그의 최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처럼 최고의 희생은 아날지라도 나의 적은 희생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성경의 명령을 백프로 행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바라보며 실습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는 내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본문에서 환난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그리고 알라” 라고 말한다. 알아야 할 것은 환난을 통한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고 불행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환난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환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 대해서 오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환난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이제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는 환난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 생각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운명입니까?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차마 그 말은 안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한복음 9:3)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알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때 너무 너무 중요한 인내라는 엄청난 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환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 그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시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가짜 믿음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로 판명되면 어떻게겠는가? 마지막 환난 때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믿음을 시험하신다.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에서 주인공이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라서 보석이 하나도 없었다.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려 중요한 파티에 참여했다가 그만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 일생동안 돈을 벌어 목걸이를 사다가 친구에게 갖다 주니까 친구의 답변, “그것은 가짜였는데!” 가짜 목걸이를 진짜인줄 알고 일생을 허비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때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은 가짜야” 하는 선고를 듣는다면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정 받은 참 믿음은 인내라는 보배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별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환난의 의미를 잘 몰라서 환난 가운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심방한답시고 찾아와서 이 사고는 "하나님이 네가 죄를 범해서 벌을 준 것이다. 너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의 종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큰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환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장 이런 기독교는 못 믿겠다고 포기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환난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욥을 찾아 가서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마구 책망을 한다. 결국 그들이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혀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으로 하여금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욥기 42:7-8).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잘못 알기 쉬운 것들이 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이런 벌을 주시는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 고통을 주시는가? 나의 운명이 이렇게 살도록 주어진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환난이 가져올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한다. 그리고 알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왜 이 환난이 오게 되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태복음 16:3)고 책망 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코로나가 생기자, 존 파이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

는 책을 썼다. 코로라라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 중의 한 목사가 있는데, 그는 위암으로 위를 다 절제해 내고, 비장, 신장까지 잘라 내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 없는 극도의 고통 중에 있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환난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몇 달 동안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통해서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극한 육체적 고통을 참고 항상 감사할 수 있었다. 환난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된 그는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현재 힘차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가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약 2개월 정도 매일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다. 것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 때 내가 그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도움을 준 책이 있다. 그 책은 Jerry Bridges가 쓴 “Trusting God(Even When Life Hurts)” 이다.

“그리고 알라”. 우리는 코로나라는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의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마스크 쓰는 훈련, 거리두기 훈련, 육신을 즐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훈련, 인내하며 기도하는 훈련, 인내하며 성경 읽는 훈련 - 이 모든 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1:2-4). 시련이 저절로 인내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시련 중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루라”(let endurance have its perfect)는 말은 온전한 인내를 가져올 때까지 힘써서 인내하라는 것이다. 도중에 인내를 포기하면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천로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많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인내한다. 나는 이 시간에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고전 중인 고전인 천로역정을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란다. 이 책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 인내로 인생의 승리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어떤 시련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라”, “최후에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이다.

앞에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알라”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세계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야고보의 특징이 행함을 강조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 행함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행함이다. 인내는 생각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행동의 영역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마지막 그 행동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루라”는 것이다. 끝까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이겨 나가야 한다. 야고보가 얼마나 인내를 강조하는가? 그 짧은 책에서 여러 구절에서 인내를 강조한다.

야고보서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5: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특히 여기서 옴의 인내를 강조한다. 옴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잃었다. 육신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친한 친구들이 와서 상처를 쭉셔 대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인내했다. 옴기 23:10에서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인격을 인정해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을 텐데 마지막 몇 날을 참지 못하여, 아니 마지막 5분을 참지 못하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인내를 끝까지 해야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다. 온전하다는

뜻은 성숙하다는 뜻이다. 인내를 배운 자만이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질 수 있다. 구비한다는 말은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의미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수없이 반복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다.

바울은 인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로마서 5:3-5을 읽어보자.

로마서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참 특징은 인내를 만들어 낸 사람이고 인내는 연단 곧 인격을 낳고 인격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성령 충만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 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내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인내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제 일 어려운 것은 참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절망감 때문이다. 아무리 참아도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가 어려운 것이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인내가 어렵다.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여섯 가정을 위하여 매일 밤 내 아내와

함께 기도한다. 그들이 갈등을 인내로 이기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다.

나에게 한 조카가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를 너무 좋아했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요 박사님이요 대학교수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그동안 관계가 끊겼다. 그런데 약 5년 전쯤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험을 하나 가입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원래 보험을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었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지 오래된 그가 1년 동안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더니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 회사는 프렌차이즈 회사인데 그 회사의 한 지분을 싸게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그에게 맡겼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그에게 일자릴 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내 사역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나는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가게가 운영이 잘 되었다. 그리고 그도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의 문제는 그의 “한량” 정신이다. “한량” 정신이란 마음씨 좋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 주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정신이 없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만 책임감이 없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인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짐이 된다. 나의 모친은 내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40대 초반에 아직 미성년자인 여섯 아들을 책임 맡아야 할 과부가 되었다. 강한 투쟁 정신으로 자식들을 훌륭하게 길러

내렸다. 그 핏줄을 타고나서인지 나는 항상 안 되는 일이지만 되게하는 투쟁 정신이 강하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삶을 배우고 있다. 그와 나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갈등이 심했다. 나는 전 회사 사장과 함께 매 주일 성경 공부 끝나고 사업을 위한 투쟁 정신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그의 한량 정신은 코로나란 괴물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나는 그 때문에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먹고 살길이 없는 그의 문제가 더 걱정이었다. 아는 분에게 부탁하여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해 주었다.

3개월쯤 후에 그에게 연락이 왔다. “저 쫓겨 났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회사 사장에게 전화해 보니 그는 책임감이 없고 항상 책상에 앉아서 영어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량 정신이 여기서는 통할 수가 없었다. 그 사장에게 사정해서 한달만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내보내시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9시 출근인데 7시에 출근하여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변화의 싸인이 보인 것 같다. 지난 5년 동안 그와 나와의 관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도 그 친구 때문에 열난 것이 많았지만 그 역시 나로 인하여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나 나나 지난 5년 동안 힘든 인내를 이겨냄으로 인격적으로 원숙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는 가정과 회사에서 책임감 있는 인물이 되었다. 지난 주일 그의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를 통해서 내 유튜브 강의 소개를 받고 듣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한다. 이처럼 인내는 성숙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준다.

지난 몇 주 동안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있기 마련이다. 환난을 피할 수는 없다. 문제는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라”, “알라”, “이루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시련은 결코 우리의 죄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감정에 빠지지 않고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고” “알고” “이름으로”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다.

2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야고보서 1:5-8)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1: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많은 사람이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첫째는 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얻을 수 있다.

1. 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지혜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지혜란 기독교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또한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예수님을 말한다고도 했다. 위로부터 주신 신적인 선물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태복음 10:16). 이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매일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냥 눈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다. 지난 기도 모임에 어떤 장로님이 요즈음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 개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내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혹은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의 필요성을 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열왕기상 3: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 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처럼 유능한 왕이 어디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당시 세상 사람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환난이 있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마는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이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해결할 길이 있다. 이때야말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

나는 한 선교 단체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 단체의 간사로 몇 년 동안 일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았다. 그 단체가 그렇게 가다가는 사회와 역사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이 문제가 너무 심했다. 그러나 그 단체는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그의 비성경적인 방식을 지적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마치 북한 김정은 앞에 나가서 그의 잘못된 통치 방법을 지적하는 것과 같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먼저 한 동료 간사와 아침 어떤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게 되었다. 그 간사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몇몇 간사들을 접촉한 결과 그들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의 간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 단체의 지도자 몰래 속리산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각자 괴로워했던 속마음을 토로하며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그리고 모든 간사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그 단체 지도자 L씨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결코 이 일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다. 한창 그 단체가 수백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국내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지도자 L씨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L씨는 그의특유한수단을 총동원하여 당근과 채찍으로 모든 간사들을 한 명씩, 한명씩 자기편으로 되돌렸다. 결국에는 4명의 간사만 남았다. 의기충전했던 개혁의 불길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L씨는 남은 4명 중에서도 나를 주동자로 지목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온갖 핍박을 쏟아부었다. 내가 없는 사이, 해산 일주일을 앞둔 내 아내와 2자녀를 살던 집에서 쫓아내 경기도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난방도 안 된 곳으로 추방해 버렸다. 그리고는 내가 담당하던 사역지에 3명의 간사들을 파송하여 나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를 사단의 앞잡이라고 내 양들을 세뇌시키게 하였다. 나는 집도 빼앗기고, 사역지도 빼앗기고 가야 할 곳이 없었다.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나는 오갈 데 없이 여관에서 몇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정쯤에 나에게 놀라운 지혜와 용기가 용솟음쳤다.

간사들과 학생 리더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나의 사역지를 단신으로 찾아갔다. 발길로 문을 걷어차며 “문열어!” 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간사가 잠을 자다가 깨서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 주었다. 그를 만나자마자 “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였으니 당장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 추방시키겠다” 고 하였다. 그들에게 세뇌당한 몇몇 형제들이 그를 도와 나를 밀치고자 했으나 그 간사는 두려워하여 혼비 백산하며 도망가고 말았다. 그래서 학생 리더들을 다시 설득하여 내 사역지를 되찾게 되었다.

이 때 그 센터 건물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과 상대방이 수를 쓰지 못하도록 밤중에 찾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지혜였다. 뿐만 아니라 단신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단체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 그 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험난한 과정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해주셔서 건전한 학생 선교단체, ESF (기독교대학인회)를 출발케하셨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역경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다.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반드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2. 하나님 만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의 두 번째 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사랑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혹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자들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이 나온다. 금수저, 흙수저 라는 말도 나온다. 얼마전 한 젊은이가 아빠 찬스로 50억의 퇴직금을 받아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세상 부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지혜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5 말씀을 읽어보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1:5).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1:5).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지혜의

쌈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쌈이시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 말라”(잠언 3:5)고 한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다. "후히"라는 말 속에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제한 없이, 아주 넉넉하게,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인색해서 구하는 자에게 마지못해서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풍요롭고 넉넉하게 주신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로마서 8:32).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한다.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다. 이분을 보면 항상 풍요롭고 넉넉하다. 교회 행사가 있어 음식을 만들면 최고의 재료에 넉넉하게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기뻐한다. 주일학교 아이들 소풍을 가면 김밥을 싸는데도 최고의 재료, 아보카도 같은 것을 풍성히 넣어서 만드니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철야 기도를 할때면 들통으로 하나 가득 육개장을 끓여오곤 했다.. 이와 같이 넉넉함이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풍성해 진다.

이처럼 사람도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제한 없이 아주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풍성하겠는가?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풍성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1:5). 하나님은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지 않는다(without finding fault)는 말이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허물이 많은 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하기 힘들다. 물론 우리들이 계속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한다(시편 66:18).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품은 채 기도하면 안 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큰 죄도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반면에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기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 주신다.

이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7:7-11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좋아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인간적인 끈질긴 노력을 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한 선배가 이 말을 인용하여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라고 격려해 주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아빠와 아주 대조적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아빠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 선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은 곧 지혜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서술문 다음에 명령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 이 말씀은 황금률로 유명한 말씀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른 사회생활의 원리 중의 하나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은 역지사지보다 훨씬 차원 높고 어려운 윤리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황금률을 행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넉넉하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구어 온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 본 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뉴욕 타임스에도 이 분의 죽음을 보도할 정도였다. 그의 빈소에는 대선 주자들, 유명 정치인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거 물려들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유력 대선 주자에게 집단 인수기도를 해서 여론의 못매를 맞기도 했다. 이 분에 대하여 한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분이 폐북에 쓴 글을 읽었다.

“나는 평소 000 목사를 아주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고 마음속으로는 그보다 더 심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악용하여 개인도 타락하고 한국 교회도 타락시켰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 말미에 그는 이런 결심을 썼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절대로 밥벌이하지 않는다.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실천한다.”

정말 동감이다. 한국에는 특별한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오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고마운 분들이다. 그러나 이런 분들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받은 바 은혜로 남을 대접하고 베풀고자 하기보다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존경받아야 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퇴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다가 일생 동안 섬겨 왔던 양떼들과 원수가 된 분, 남에게 주기 아까워 세습을 강행한 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 은퇴 후 계속 자기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 그러다가 그렇게 믿고 맡겨준 후임 목사와 갈등을 겪는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는 것이 황금율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으로 감사하고 은퇴할 때는 미련 없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이다.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것을 풍성히 받으라. 받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인 황금률이다. 이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데.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3.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첫째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1:6). 믿음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결코 실패한 경우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한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 홍해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을 때 홍해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게 끌려가서 죽거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였다(출애굽기 14:13).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홍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의 두 가지 보고가 대조된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았고, 영락 없이 그들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다(민수기 14:9).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 주신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쳐 드려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창세기 22:18). 그래서 그의 아들 대신에 양을 번제로 드렸다.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엘리사가 머문 성을 에워쌌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다(열왕기하 6:14-17).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라고 해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그 눈을 돌려 물을 바라보니 두려워 물에 빠졌다(마태복음 14:22-33).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독이 차올라 금방 쓰러져 죽어 가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워 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놋뱀만 바라 본 사람은 금방 죽어 가던 사람이 깨끗이 나아서 죽지 않았다(민수기 21:4-9).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바로 인자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다(요한복음 3:14-15).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길을 보여 주신다.

둘째, 의심을 버려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1:6-8). 본문에서 야고보는 의심과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동일시 하고 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뿔슈코스 아네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위선자란 의미이다.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란 온전함(1:27, 3:17, 4:8)과 정결함(1:4, 2:22, 3:2)에 대한 반대말이다.

그래서 의심하는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안정감이 없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인간 중심적인 생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자기 생각과 논리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의심이다. 이성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다. 그러나 그 이성이 잘못 사용되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 큰 방해꾼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이성의 재판에 회부할 때 의심이 생긴다. 그러나 이성을 신앙의 종으로 만들면 그야말로 큰 유익이 있다. 우리의 이성이 믿음을 출발시키고 믿음의 결론을 맺는데 기여할 때 그 이성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성은 잘못 쓰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만 이성을 바로 쓰면 오히려 강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직한 의심은 필요하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의심이 있으면서도 그냥 믿는 체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롭다. 의심이 있을 때 철저히 의심을 파헤쳐 진정한 믿음을 갖고자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도마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의심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았다. 그의 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확실한 신앙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자주 의심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신앙 교제를 하려 했으나 베드로가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다. 돌아가며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저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항상 의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다.’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여 인도에 선교사로서 큰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

우리가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1:7)고 했다. 믿음 없이 두 마음을 품고 불확실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면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아직 신자가 못 되었는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어도 의심할 수 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의심을 버리고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버리고 확실한 신앙에 들어 올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두가지 큰 원수가 있다. 그것은 사단과 육신의 생각이다. 이 두 가지와 싸워 이길 때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한번 여러분 시험을 해보라. 지금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환난이 있는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운명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좌절감이 있는가?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육신적인 생각에 온전히 지배당한 생각이다. 사단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싸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성령님이 찾아 오셔서 우리의 싸움에

큰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가능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과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무기다. 사단은 이 무기고를 점령하고자 한다. 절대로 이 무기고를 사단에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기도를 배운 사람은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5-6). 영국 메리 여왕을 두렵게 만들었던 기도의 영웅 존 녹스의 기도의 싸움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된다. 1572년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한 장로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난 두 밤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묵상했다.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 받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값진 것이기에, 나는 교회가 그 값진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나는 나를 항상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단과 싸웠다. 나는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싸웠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나는 천국에 있었고 지금도 천국에 있으며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그의 승리의 기도생활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배워 온 것이다. 지난 번 첫 시간에 기도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존 녹스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능력은, 그의 견디기 어려운 희생의 삶으로 형성된 제자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가 개혁자로서 말씀 선포에 큰 능력을 발휘할 때,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여왕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군대가 그를 체포하여 노예로 삼았다. 그는 노를 젓는 노예선에서 쇠사슬에 메여서 9개월 동안 노를 저었다. 그가 병이 들어 쓸모 없게 되자 그를 쇠사슬에서 풀어 배 안에 있는 감옥에 던져 넣어 스스로 죽도록 방치했다. 마침 그 배가 자기가 설교했던 St. Andrews 교회를 지나게 되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창밖을 내다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교회의 종탑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자 그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마음 속에서 솟아 났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비록 몸이 너무 쇠약하여 일어날 수 없지만 내가 저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각오대로 그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편단심으로, 사단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 승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악으로부터 지켜 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승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살려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조장하는 사단의 세력과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항상 싸워야 할 원수이다. 이 원수와 기도로 피투성이가 나도록 싸우자.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환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첫째, 지혜가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셋째,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다.

앞으로 펼쳐질 야고보의 말씀은 흥미 진지하다. 계속 기대하시라.

3

가난과 부의 시험 (야고보서 1: 9-11)

1: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 하리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난과 부의 문제는 항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것도 결국은 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부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에 대한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

성경은 부와 가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 역시 부를 결코 악으로 보지 않는다. 나 역시 가난보다 부를 더 좋아 한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다. 다윗도 부자였다. 신약 시대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뤘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자는 불행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빌립보 4:12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자랑하라, 곧 기뻐하라고 말한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랑할 이유가 다를 뿐이다. 본문 야고보서 1:9-11을 읽어 보자.

야고보서 1: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무슨 뜻인가? 낮은 형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 보면 보이지 않은 엄청난 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부를, 그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 보이는 것으로 부를 평가하지 말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린도후서 4:18).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를 발견하게 될 때 자랑할 것이 많다.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부하다고 해도 그는 그 부를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 그는 곧 꽃과 같이 지나갈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보이는 부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1:9). 이 말씀에서 낮은 형제라고 말할 때의 “낮은” 의미는 가난을 의미한다.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 말로 형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했다고 볼 수 있다.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가난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많이 있다. 성경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을 결코 칭찬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고 노름하고 돈을 낭비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에게 가서 강제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부자를 혐오하고 부자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평등하게 나눠 살자고 하는 사고를 갖는 자들이 많다면 그것은 병든 사회이다. 그것은 결코 평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다면 그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현재의 나를 좀 부족한 형편에 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가난이나 인간적인 불만족한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 분노, 열등감을 갖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도와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신다. 뱀전 5:6을 보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의 인간적인 가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한복음 1:12).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로마서 8:17).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베드로후서 1:4).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셨다(마태복음 16:26). 요즈음 집 값이 폭등하여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 사람과 비강남권 사람들 사이에 차등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졌기에,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부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할 것이 없다. 성경을 읽어 보면 가난하면서도 자랑, 곧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8-10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고린도후서 6:8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가난과 나의 낮은 인간 조건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나의 이 내적인 부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오히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된 사람은 이제, 어떤 과거를 가졌든, 현재의 외적인 상태가 어떻든, 다만 그 높음을 자랑한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운다.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뇌성 마비로 부끄러울 것 밖에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노래 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볼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는 중고등학교의 교사 자격증을 3개나 가졌다. 그 중에도 영어와 수학교사 자격증을 가졌고,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높았다. 당시에 영어나 수학 선생은 월급 외에 과외 수입이 더 많았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결혼할 때 완전히 빈 털털이었다. 결혼식 때 내 아내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너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가진 것 없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려고 하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결혼 후 자식을 낳아서 교육 시킬 걱정은 나중 일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더 큰 문제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당장 신혼여행도 갈 형편이 못 되었다. 시골에 있는 우리 집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교통비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는 뻔뻔하게 내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다. 당신 주의 종이 무슨 돈이 있다고 교통비도 준비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 아내는 친절에 연락해서 교통비를 가져다 주었다. 그 뿐인가. 시골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날 밤 잠을 잘 방이 없었다. 몇 시간을 걸쳐 살 집을 구하려다녔다. 부엌도 없는 작은 방이 하나 나왔는데 보증금 5만원에 월세 5천원이었다. 수중에 3000원 있었는데 2500원을 우선 주고 일주일 후에

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그날 밤 장판 조차도 없어 신문지를 깔고 첫날 밤을 보냈다.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넉넉한 집에서 곱게 자란 신부에게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부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내 아내는 돈 많은 의사의 청혼을 받아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그와 결혼을 포기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항상 그 친구는 자기 눈치를 보는 모습이 비굴한 남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를 많이 치는지 이 사람 뺨장만 봐도 신이 나서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혼한 아파트 한 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한없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 낮은 형제는 부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적인 자부심,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멋있는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다면 대한의 모든 딸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설 것이다. 이와 같은 멋있는 여자가 있다면 대한의 모든 아들들이 결혼하자고 줄을 설 것이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1:9). 이 말씀 깊이 묵상하자. 여러분의 삶을 한 없이 부요케 할 것이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부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예외 없이 사람들이 부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흔히 목사들도 돈을 좋아 한다고 한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

돈이 많으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옛날에 아주 돈을 잘 버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그는 자기의 아이디어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회사의 이익을 주는데 그에 비해서 자기가 받는 월급은 훨씬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너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돈을 더 갖고 싶냐?" 그랬더니 그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느냐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왜 돈이 많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을 마음껏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명예까지 따라온다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무시 못하고 여자들도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 때야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지, 그래서 돈이 많으면 당연히 돈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성경은 돈,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10-11).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부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가 꽃처럼 떨어진다고 했다. 부는 결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아무리 큰 부를 가졌다 해도 그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하였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우기가 끝나고 강한 햇빛이 내려 쏘이면 뜨거운 바람이 분다. 이 열풍은 열을 동반하여 채소를 종종 죽어버리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신 일이 있다.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2:55).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풀 많은 잠시라고한다.

그와 같이 부한 자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큰 사업을 이루고 평평거리며 살지만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를 구하여 먹고 영원히 살고자 했지만 결국 그도 죽고 말았다.

또한 부가 좋은 것이지만 부가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마태복음 19:24)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부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야고보서 5: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바울도 부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디모데전서 6: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이처럼 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부를 무조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의 위험을 알고 그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이다. 부 때문에 인생의 비극을 맞는 예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고, 현실세계에서도 수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야고보 사도는 부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부한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친다.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볼 수 있으려면, 부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부보다 훨씬 큰 보물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디모데전서 6:17).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되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런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예레미야 9: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인애
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
이심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깨달을 때, 결코 나는 부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부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를 즐길 수 있고 부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부를 이룬 것이 아니고 부 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7).

내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다. 어렸을 때 부의
온갖 특권을 누리고 살았다. 수 많은 가정교사를 갈아 치우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춤이면 춤, 운동이면 운동등, 못하는 것이 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가 한 그리스도인 가정교사를 만나게 되
었다. 어떤 일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에게 꼼짝 못하게 붙잡혀 살게 되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자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가 쓴
간증문을 듣던 어떤 분은 "어쩌면 저처럼 인생이 바뀌질 수 있을까 "
하고 놀라워했다. 또한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자매와 결혼을 했다.
그는 불신자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다가 부모의 눈
밖에 났다. 처자식까지 가진 그가 집에서 쫓겨나 지하 셋방에 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가난에 쪼들려 살아야만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 모든 부를 상속 받게 되었다. 그가 그 부를 누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목사님 돈이 이렇게 좋은 것을 몰랐어요.”

그 후 그는 그 엄청난 부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살고 있다. 돈이 자기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하여 쓰고자 하기보다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쓰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았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사는 삶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선교 단체를 물심 양면으로 도우면서 대학생 복음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청소년 학원을 20년 이상 경영하면서 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는 청소년 선교 단체를 세워 청소년 구원에 힘쓰고자 건물을 마련하고 간사를 모집중이다. 내가 은퇴한 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선교 센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는 결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고 있다.

부와 가난은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 사단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부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고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한다.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전혀 구애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며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와 가난의 시험에서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4

시험과 유혹 (야고보서 1:12-18)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그 이유가 헬라어에서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헬라어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그 뜻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유혹은 내적인 욕심에서 나온다. 시험이 가져오는 최종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유혹이 가져 오는 최종 결과는 사망이다.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 이라”(1:12).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욥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당한 자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에 합격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험에 합격할 때 큰 복을 주신다.

내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었다. 공부에 대한 부담에 운전면허 시험까지 본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보였다. 그래서 내 아내보고 먼저 운전면허 시험을 보라고 했다. 내 아내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해가 안되는 영어 문장을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공부 책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었다. ‘이 시험은 일년에 수 만명이 합격하고 있고 이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합격하도록 돕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운전 면허 시험을 합격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

여기서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행복이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상태를 말한다. 이 복을 본문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한다. 면류관이라는 개념은 당시 운동경기에서 경기의 1등에게 수여된 면류관이라는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의 면류관의 개념은 승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려운 시험이 있게 마련이고 이 시험을 참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이 있다.

현재적인 개념은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서 영적으로 부요하고 기쁘고 승리를 만끽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b).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썼다. 환난을 참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며 산다.

생명의 면류관의 미래적인 개념은 야고보서 2:5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8에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천국의 무한하고 영원한 충만을 나타낸다. 그것은 수고와 고난을 통한 보상으로서의 생명의 면류관이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적인 그리스도인의 축복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산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귀중성을 잘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성경은 지상의 우리의 삶을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라고 말한다(야고보서 4:14). 또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말한다(베드로전서 1:17).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한 순간의 풀같다고 말한다(시편 90:5). 이 땅에서의 삶은 짧지만 이 땅에서의 시험, 고통, 인내, 지혜, 믿음의 삶이 가져오는 종말론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흔히 사람들은 요즈음 노후 준비를 해야한다고 많이들 말한다. 노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노후에 아무런 경제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노후는 아무리 길어봐야 몇 십년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후의 우리의 삶은 영원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이 결정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사로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요 부자는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누가복음 16:25).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시험을 이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진다. 사울은 환난 가운데 단 몇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에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 왕위를 빼앗기는 비극을 맞게 된다.

삼상 13:10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와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불순종하고 만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순종했다.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브리서 11:17-19).

욥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 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10). 여기 단련하신다는 말은 시험하신다는 의미이다. 아브라함과 욥은 시험을 받을 때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처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이 생에 있어서나 다음 세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가 있다. 그의 잘 나가던 사업이 동업하던 사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결국 그 사업은 회생의 가망이 없었다.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집 주인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수 많은 거철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위협과 공갈을 당해야 했다. 빚쟁이들의 시도 때도 없는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우선 급한 빚을 갚기 위하여 집을 팔아 5식구가 비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다. 도움을 주겠다는 회사와 합병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사기꾼이었다. 수없이 경찰청, 검찰청에 불려 다녀야만 했다. 법정에도 끌려가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6개월 이상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그와 만나 기도를 했다. 기도하고 나면 새 힘이 솟아나고 희망이 보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국 회사 사무실에서는 쫓겨나서 오갈 데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처마저도 없어, 만나 기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하루도 빠짐 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험을 수년동안 인내로 극복하고 있다. 드디어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는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 아주 소망이 넘치는 아이티 계통의 사업을 힘차게 이루어 가고 있다. 나는 이분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어려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큰 감동을 느낀다. 과연 그는 이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이다.

죄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야고보서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 사람이 시

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단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 시
험은 잘 참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였다. 오늘은 그 시험과 대조된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
니하시느니라”(1:13).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에서 말한 시험과 달리
유혹을 의미한다. 헬라어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인데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쓴다.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영어
에서는 구별해서 쓴다. 이 구절에서 영어로 시험을 유혹(temptation)
이라고 쓰고 있다. 시험(Test)은 하나님이 주시거나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
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혹은 거부해야 한다. 유혹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다시 정리 해보면 :

욕망 - 유혹 - 욕심(죄) - 습관적인 죄 - 사망

시련 - 믿음 - 순종 - 인내 - 생명의 면류관

두가지 길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1:14).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수미아”가 번역된 것인데, 욕구 또는 소원이라는 말이다. 이 욕구의 방향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데 열심을 품으라고 말한다(디도서 2:14).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로마서 12:11).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사는 삶은 사실 아름다운 것이다. 게을러서 무기력한 삶을 성경은 결코 칭찬하지 않는다. 꿈도 비전도 목적도 없이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는 삶은 죄에 빠지기 쉬운 삶이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가 잘못되어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욕구 자체를 제거한다면 이것은 비극이다. 성욕, 식욕,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잘못된 욕구를 가진 것이 문제이다. 잘못된 욕구를 가지면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유혹은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미끼다. 그러므로 유혹에는 항상 거짓이 감추어져 있다. 유혹에는 항상 가짜 미끼가 숨어 있다. 그 미끼가 바로 쾌락이다. 많은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을 위해 살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다.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거짓이다. 일시적인 성적인 쾌락을 맛 본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이다. 쾌락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다. 오늘 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디모데후서 3:4) 사는 것은 비극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14). 여기서 “욕심”을 NIV번역에서는 “evil desire”라고 번역했다. 이 잘못된 악한 욕심이 유혹에 끌려 넘어 갈 때 미혹되었다고 말한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유혹을 없앨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 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가?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유혹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 6:13). 오늘 날 돈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인터넷 검색에서 SEX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검색된 단어라고한다. 가장 돈벌기 쉬운 방법이 이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그는 42년형을 받았다. 이 유혹에 넘어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성(sex) 등에 유혹 당하여 인생을 망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긴 사람도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있다. 이 두 가지 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다. 먼저 유혹을 이긴 요셉을 살펴 보자. 요셉같은 사람은 외로운 청년 시절에 부유한 마나님이 수차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담대히 뿌리쳤다.

창세기 39: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반면에 잠언에 나온 어리석은 자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잠언 7:7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잠언 7:16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펴고 17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22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1:15). 욕심이 잉태한다는 표현은 씨가 뿌려졌거나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혹을 떨쳐 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 것 같다. 항상 유혹은 달콤하다. 그래서 혀 밑에 그 달콤함을 감추어 두고 싶어 한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욥기 20:12).

어린이가 달콤한 사탕을 계속 즐기기 위하여 혀 밑에 둔다는 의미다. 유혹이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를 낳게 된다. “처음에 유혹은 마음에 부딪쳐 오는 생각 뿐이다. 그러다가 더 진한 상상의 색으로 그 생각을 칠한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그 유혹을 즐기고 그릇된 행보를 하며 기꺼이 동의하게 된다”(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내려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유혹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유혹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 우리 마음에서 잉태하게 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계속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망으로 추락케 된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아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다.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가능하지만 계속 죄를 품고 살게 되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둘째 사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영원한 상실을 가져 온다. 이것이 지옥이다.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가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다. 그 설교 제목은 “나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다. 그는 꿈에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예수님의 피를 외쳤더니 지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이다.

사람들이 정욕에 빠져서 잠시 동안 쾌락을 누리고 산다. 그러나 육적인 쾌락 뒤에는 슬픔이 웅크리고 있다. 세상의 외면적 행복 뒤에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대기중이다. 죄는 마약과 같아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마약 중독자들이 아무리 마약을 끊고자 해도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폭력의 노예가 된 사람, 노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아무리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대학가에는 혼전 동거가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사실이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아무리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옛날 연예인 교회 담임했던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여자만 보면 도무지 성욕을 참을 수 없어 일을 저지른다고 했다.

이처럼 죄의 마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 죄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

한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더라도, 죄의 유혹을 쉽게 당해낼 장사는 없다. 죄인들을 잡아 벌 주는 사람들까지도 더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대법원장도 죄를 지어 감옥에 가고 대통령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다. 3명의 단체장들이 이 유혹에 걸려들어 개인과 가족, 자기가 속해 있는 당에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오래전 뉴욕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일이 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 놓고 담임 목사가 유혹에 넘어가 결국 교회를 사임했다. 요즈음 유명 인사들이 엄청난 뇌물을 받아서 온 나라가 난리다.

사실 우리가 그런 죄 지을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하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 죄값은 무서운 것이다. 감옥에 가서 형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보다 더 무서운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벌인 지옥이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이 이와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 영국이 범죄와 음란으로 사회가 망해져가고 있을 때 요한 웨슬리가 말씀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했다. 이 시대는 외형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속이 한 없이 부패해 있다. 정말로 말씀의 정화운동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다.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16-18)

1: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참을 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생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거짓된 낚시밥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능히 감당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고 살아야 하며, 유혹은 물리침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시험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

고, 유혹이 오면 거짓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만다.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말한다. 속지 않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써있다. 천로역정을 읽어 보면 기독교도가 하늘 나라를 가는데 수 많은 속임수들이 있다. 그 모든 속임수들을 극복하고 하늘 나라에 입성하는 기독교도를 우리는 일생 동안 배워야 한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속지 말라는 말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나를 망치려 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유혹이 올 때 이것이 살길이라고 속히 그 낚시밥을 물어서 사망의 길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 가는데 가장 큰 유혹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소위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자기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는 지나치게 가까이하고자 한다. 반면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어쩌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과거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주 큰 속임수에 빠진 것이다. 나에게 짐만 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관심을 가져주라.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롯은 그에게 더 이상 쓸모 없고 짐만 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선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 올 수 있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1:16).

속지 않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주시하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1: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욕심대로 살 때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명심해야한다. 얕팍한 생각으로 큰 대박을 일으키고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고 완전한 것이다. 옛날에 한 부교역자가 나를 찾아와서 자기들은 생활비도 적게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만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지나치게 할 정도로 많이 드리고 있지만, 가족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에 비해서 많은 생활비를 결코 받는 것도 아니다. 내 아내의 규모 있는 살림으로 겨우 꾸려 가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교회 돈은 한푼도 개인적으로 쓴 일이 없다. 수입이 많지 않은 적은 교회에서 많은 학생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오해를 풀고 오히려 큰 감동을 받고 큰 떡 한 상자를 선물로 가져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에게만 충성할 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여기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한 다. 건강, 지혜, 능력, 물질, 기쁨, 평안, 사랑등 셀 수 없이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그 하나님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란 땅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의미한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조금도 어두움이나 죄가 있을 수 없는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다. 태양 빛도 찬란하게 비추이는 정오가 있는가 하면 지구의 반대쪽에서는 차가운 어두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덕이 없으시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완전하다는 것이다.

이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은 18절에 근거한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1:18).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였다. 새로운 생명, 중생의 선물이 위로부터 온 선물이다. 중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중생해야 되는데 이 새로 태어나는 변화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중생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숨겨진 활동이다(요한복음 3:8). 일단 중생의 순간이 발생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로운 손길을 뻗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고 회개하고 믿고 싶어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한다. 거짓이 가득 담겨 있는 불의의 재물이나, 부도덕한 권세나 명예,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린 음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였다. 신약에서 진리는 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을 내포한다. 진리는 단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행하는 어떤 것이다(갈라디아서 5:7, 요한일서 1:16). 진리는

야고보에게 실천적 의의 전체다. 이것은 사상과 행동을 아우르는 히브리어 “에메트”의 개념이다. 신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최고의 가치를 아는 지식(고린도후서 6:7, 에베소서 1:13, 디모데후서 2:15)을 전달할 뿐 아니라 복음의 수신자를 변화시킨다(요한복음 8:32, 17:19, 베드로전서 2:15).

또한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중생 시키신 목적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데 있다는 것이다.

첫 열매는 구약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70인 역에서 헬라어 단어 “파르게”는 실제 열매나 농작물 뿐만 아니라 획득물 중 최고의 것이나 가치있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장자도 첫 열매로 불릴 수 있다. 신약에서 첫 열매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을 나타낸다(로마서 16:5, 데살로니가후서 2:13, 요한계시록 14:4).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다(고린도전서 15:20,23).

또한 첫 열매 후에는 큰 수확이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라고 불렀다(로마서 16:5, 고린도전서 16:15).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피조물중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믿지 않는 자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이요, 또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도록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 첫 열매로서의 거룩한 보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유력한 자를 찾아 다니며 그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위로부터 받고 살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to 힘써야 한다.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감히 경고한다. 적어도 매일 2시간 기도와 3시간 말씀 연구 없이 강단에 서지 말라.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한다. 충분한 기도와 말씀 연구 없는 목회자의 설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자유롭게 목회하도록 허락하지 말라.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우리에게 적용되어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 연구와 기도 to 온 힘을 쏟고 있다.

6

말씀을 듣는 자의 복 (야고보서 1:19-21)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1: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신앙 성장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보물을 누리고 살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수없이 강조한다. 몇 구절만을 소개 하고자 한다.

요한계시록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1 "복 있는 사람은 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서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적인 말이 많고 성내고 화내는 일이 많다. 인간의 말이 많고 성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말이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이다. 말이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온 성도가 1년만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면 교회는 아주 평안해질 것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1:19) -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1:21).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였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구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 인격적인 구원을 가져다 준 복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자이다. 본문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태복음 13:23)이라는 말씀은 땅에 떨어진 씨가 심겨질 때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을 상상케 한다. 신자는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

예레미야 31:32 "이 언약(새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옛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새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다. 우리가 옛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율법을 마음에 새겨 둬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야고보서 1:25에서는 이것

을 “자유케 하는 율법” 이라고 하였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발에 말씀(복음)이 이미 심겨진 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을 통해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이 심겨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새겨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고 또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라는 의미이다. 거기에서 모든 기독교의 윤리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 듣는 일이 없이 기독교의 윤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 위선이다.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충고를 많이 들어도 말씀(복음)을 듣는 것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수없이 강조한 것이 도덕적인 설교를 하지말고 복음 설교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충고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리 충고를 많이 해 준다고 해도 그 충고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충고할 일이 있으면 충고하기 전에 오랜 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충고하기 전에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충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비친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충고하기를 좋아하다. 특히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잘 보인다. 그래서 그 허물을 고쳐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 주겠는가 생각하면서 충대를 메는 심정으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1:21).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 먼저 소극적인 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했다. 이 표현은 옷을 벗는데 사용하는 단어이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악으로 가득차서 가만 놓아두면 그 악이 자라서 넘쳐 흐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악을 더러운 옷을 벗듯이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을 방치한 채 말씀을 받고자 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받고자 하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말씀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면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온유의 반대개념은 성내고 완고함, 의도적으로 논쟁하는 태도이다. 온유는 겸손한 마음, 치유 받기를 바라는 상한 마음,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다(마태복음 5:5). 또한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에게 배울 때 진정한 심을 얻는다고 하였다(마태복음 11:29).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온유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 전할 수 없고 말씀을 받는 자 역시 성령의 도움이 없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풍성히 전파되고 전파된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능력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달게 받는 교회이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성령을 더 깊이 연구하겠다고 유학까지 가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사역했을 때가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목사님이 그 때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에게 초청받아 말씀 집회를 했다.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한 시간 이상 질문 시간을 가졌다. 그 때 참석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 당시 학생이었던 한 형제가 미국 Westminster 신학교를 나와 유명한 조직신학 학자가 되었다. 한번은 내가 미국에서 어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했는데 그가 주례를 했다. 그가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때 성령 받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오늘 날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설교가 짧아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어떤 공장에서 여성 직공들 몇 사람으로 시작한 교회이다. 목사님은 오직 말씀 증거하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이셨다. 그 교회가 점점 자라서 독자적인 예배당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아주 큰 예배당을 지어 많은 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다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제자 중의 한 사람이 교회를 맡았다. 그 교회를 책임 맡은 목사님 역시 전임 목사님과 같이 오직 말씀 증거에 충성한다. 그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전 성도에게 설교 원고를 나누어주고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원고를 읽어 내려간다. 성도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한다. 교인들 중에는 교육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데는 동일한 열심을 갖는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요즈음 소위 말씀 집회가 아주 사라지고 있다.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다(마태복음 3:5). 48km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부흥할 때는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면 목포에서 평양까지 간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시대일수록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고 모여든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말씀 운동이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운동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지금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머지 않아 한국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 소망의 역사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7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 (야고보서 1:22-25)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23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1: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 버리거니와 1: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22). “너희는” (기네스체)라는 말은 “너희는임을 확신하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 “듣는자” (아크로아 타이)란 말은 정기적으로 강의를 들었으나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계속 들을 수 있으나 단지 듣는데 그치고 말씀을 행함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셨다(누가복음 11:28).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밭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로마서 2:13).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위선자가 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설교자 로버트 존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께 바치지도 않은 채, 겉으로 시늉만 내는 가식적인 고백들은 모두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이 없다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까지 우롱한다는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닌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마태복음 7:24-27참조).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는 훈련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된다. 소감이란 듣거나 읽은 말씀을 내 말로 요약해 보고 깊이 이해한 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한 이 유튜브 방송 말씀을 들은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소감을 써서 댓글에 올려 달라는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자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소감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보다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 버리

거니와”(1:23-24). 거울을 보고나서 자기 얼굴을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곧 잊어버림과 같이 말씀의 내용을 금방 잊어 버린다. 여기서 거울은 온전한 율법을 비유하고 있다. 그 온전한 율법인 거울을 잠깐 보고 떠나는 것처럼 떠나면 안 된다. 계속 그 율법을 응시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할 때 말씀을 잊어 버리지 않고 그 율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감명을 깊이 받은 말씀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 버린다. 내가 목회를 할 때 가끔 외부 강사들을 초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와 똑같은 말씀을 수없이 가르쳤는데도 그 말씀을 다 잊어 버리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1: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단지 도덕적인 요구로 제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서의 말씀을 의미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진리의 말씀, 즉 신자를 낳고 성숙하게 하는 도구인 복음이다. 앞에서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과 같은 것이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도덕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 말씀이다. 말씀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율법대로 행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감정에 끌려 살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다만 우리의 능력으로 도덕적인 요구로 제한된 율법만을 지키고자 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복음, 도덕적인 윤리와 그 윤리를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함께 포함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인 윤리로만 제한된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을 얽매이게 한다.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쉽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자기의 노력과 자원으로 도덕적으로 제한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쉽이 없다. 자유가 없다. 진정한 쉽,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쉽과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9-30). 우리가 방종할 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때 자유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신들린 자처럼 피아노 건반을 자유자재로 누르면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철저하게 피아노치는 법칙(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성령의 은혜로 잘 지키는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들여다 보고 있는 자”란 자세히 살펴 보고 그 곁에 거한 사람을 의미한다(one who looks intently and abides by it). 거울을 보고 지나간 것처럼 살지 않고 참된 거울인 율법(말씀)을 자세히 살펴 보고 그 곁에 거한 사람은 율법을 잊어버릴 수 없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말씀이 잉태하면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암송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암송해야 한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도록 힘쓰라는 말을 수 없이 강조한다.

잠언 4:20 "내 아들이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신명기 6: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시편 1:1 "복 있는 사람은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급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말씀의 뜻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머물며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 그 행함은 바로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They will be blessed in what they do.) 여기서 복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행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행통하다는 것은 번영을 의미한다.

영어로 prosper라고 했다. 가정 일이나 직장 일이나 공부하는 일 등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 문제를 많이 본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행복하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변영신학자들이 말한 그런 의미와 다르다. 변영신학에서는 행위의 대가로 복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이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큰 복이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순종한 참 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시간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8

경건한 자의 복 (야고보서 1:26-27)

1: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된 경건을 가져오기 위하여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일 세 가지를 야고보는 제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윤리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이다. 사실 이 세가지 측면들은 야고보서의 전체에서 행함의 기본 요소이다. 이 세가지 기본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진 것이다.

첫째, 혀를 통제하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1:26). 여기서 혀가 지닌 구체적인 문제는 남을 나쁘게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높이는 이기적인 교만한 정신이다. 욕설, 거짓말, 추잡한 농담, 독설, 뽐내는 자랑 등이 교만한 정신과 경건치 못한 마음의 표출인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통제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언사는 모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 악한 말버릇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이며 그의 경건은 헛 것이다. 성화의 한 증거는 우리의 혀가 통제되고, 성령의 내주로 인해 은혜로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중요한 일에 있어서 혀를 통제하지 않음으로 많은 분란이 생긴다. 그러나 실제로 혀를 통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3)

둘째, 궁핍을 베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1:27).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행해야 할 일은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일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 당시 고아들은 거지 생활을 하며 사는 버림 받은 자들이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돌봐주거나 입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이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의 경우와 다르다. 오늘날 아무리 고아라도 어려서는 고아원에서 길러주고 학교도 보내준다. 그러므로 마음만 잘 먹으면 자신의 인생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과부들도 오히려 생활력이 강해서 더 부유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과부와 고아들은 참으로 누가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생존 자체에 위험을 당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교회가 이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참으로 환난당한 자를 돌보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런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고아나 과부를 돕고자 할 때 문제는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돕고자 하지만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얼마든지 주신다.

나는 대학생 때 너무 가난했다. 나뿐 아니라 60년대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모두가 가난했다. 그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성경에서 배웠다. 그러나 나도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같이 한 몇몇 대학생들이 모여 구제하기 위하여 장사를하기로 했다. 비누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아 돈을 마련하고, 때로는 굴장사, 군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양로원을 찾아 다니며 어른들에게 선물도 사다 드리고 떡국도 끓여서 대접을 했다. 내가 쓰기 위하여 그런 장사를 한다면 부끄러울텐데 남을 돕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니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아주 기쁨이 넘쳤다. 한번은 친구들끼리 연탄을 배달해서 돈을 번 일도 있었다. 연탄을 배달을 하게 되면 옷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까맣게 되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남을 위한 일이기에 오히려 재미가 있었다. 아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일감을 따와서 연탄을 배달했다. 한번은 대학교 학장님의 집에 연탄을 배달하게 되었다. 인자한 학장님이 우리의 뜻을 알고 칭찬해

주고, 사모님은 당시 우리가 먹기 힘든 최고의 밥상을 차려 줘서 식사를 맛있게 먹었던 경험도 있다. 처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 말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보니 아무리 손에 든 현금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은 후 돈이 없어 무엇을 못해 본 일이 없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돈을 주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 하게 된 것이다.

셋째, 세속에 물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1:27).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나큰 사랑을 알면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주님과 연합되는 기쁨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실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헌신해야 하며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싸워야하는가를 알아야한다.

나는 젊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훈련을 많이 받았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것이 한결같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때는 드라마에 빠져 헤어나지 못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전혀 드라마에 흥미가 없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프로야구에 빠져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TV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곤 했다. 수없이 여기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았다. 성령의 열매 중의 하나가 “절제”인데 이 열매를 맺게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것도 도와주셨다. 그 시간에 아내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는 공원을 걸으면서 영어 방송이나 오디오 성경을 들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오래 전에 강의를 부탁하기 위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인 교수님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때가 저녁 9시쯤 되었는데 그분은 교수 사무실에 있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 가지지 않고 사무실에 계십니까 물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집에 일찍 가면 TV나 보고 시간 낭비가 많아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고 하였다. 각자 세속에 물들기 쉬운 자신을 건져내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

지난번에 함께 유학을 했던 은퇴한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안부를 물으면서 요즈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의 말은 은퇴한 동료 교수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동안 전공에만 얽매어 살았는데 전공을 떠나 다양한 책들을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가르쳤던 많은 제자 목사들에게 설교를 가르쳐야겠다는 비전으로 불타 있었다. 저차원의 문제는 고차원으로 해결한다는 말이 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차원 높은 일을 찾아서 한다면 우리는 보다 깊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처럼 육체의 훈련도 어렵지만 경건의 훈련은 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는 법을 알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육체의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배운다면 경건의 연습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경건의 훈련을 감당한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디모데전서 4:8).

Part II

야고보서 2 장

1

차별대우 (야고보서 2:1-7)

2:1"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2: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2: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2: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2:7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1:1-27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실제적인 적용문제를 다룬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차별 문제이다. 만약에 교회 내에 차별대우가 있다면 이것은 신앙을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내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 한다. “내 형제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NRSV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수사학적인 질문은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학 형식이다. 차별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요성, 명예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별대우는 하나님의 속성과 아주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한다면 믿음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야고보 시대에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흔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행동들의 구체적인 예가 2절과 3절에 자세히 나와 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2:2-3).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부를 드러내 과시한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앞으소서”라고 특별한 대접을 한다.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무시하는 대접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차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를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의심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차별하다”는 뜻이 있다. 의심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여기서 차별하는 것도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말은 당시 흔히 있었던 부패한 재판관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불의와 부패와는 거리가 먼 정의로운 재판관이시다. 그러므로 차별하는 행위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차별대우는 단순한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행위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차별이 있을 때 그의 공동체는 현저하게 세속화 되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차별행위가 심해져 감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드러내 놓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는 않지만 그 이면을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현상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한가지 예로 장로, 안수 집사, 권사등의 중직이 헌신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기준이 되는 것은 심히 위태로운 일이다. 인격이나 신앙에 있어서 도저히 중직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외형적인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중직으로 세우고 중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중직이 되지 못하는 불공평함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2:5-6). 야고보는 현세적인 물질의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임을 독자가 잘 알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마태복음 5:3, 누가복음 6:20)이며 구약에서도 발견된다(사무엘상 2:8, 시편 14:30, 61:1). “믿음에 부요한자”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다는 의미이다. “믿음에 부요한자”란 이 세상 어떤 부요한 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부요한 자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영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신다.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가난하지만 충성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많이 본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한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선언의 핵심이다. 가난한 자들은 장차 올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함을 의미한다. 가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난할 때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낮은 자일수록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축복을 귀하게 여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교회가 말씀이 살아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을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괘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2:6-7).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감” “훼방하는 자” 라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행위들이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5:11, 10:17-18).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말은 예수에게 속한 가난한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자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특별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 육적인 성품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 그 육적인 성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성품을 찾아내서 복음으로 해결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대우를 통해서 야고보는 교회의 비복음적인 죄악을 깨닫도록 돕고 회개하기를 경고한다. 차별대우가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선교사님이 ESF에서 발행하는 일용할 양식에 이런 간증의 글을 올렸다. 자기가 선교지의 한 형제의 주례를 서게 되었다. 주례가 끝나고 결혼 피로연을 하는데 그 신랑이 10개의 꽃다발을 고마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론 주례자도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꽃다발을 받은 사람은 볼품이 없는 허름한 옷을 입었고 애꾸눈이었다. 신랑은 그 꽃다발을 증정하면서 그 분을 이렇게 소개 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최고의 목공이십니다. 일생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 한 벌을 사입지 않으시면서 내가 대학원까지 마치도록 도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의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말은 결혼식장을 온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되도록 만들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존경받는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는다.

2

최고의 법, 이웃 사랑 (야고보서 2:8-13)

2: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2: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2: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2: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2: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차별대우가 왜 잘못된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을 제시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을 순종하는 자는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1. 왜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인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37-40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다.

마태복음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다. 강령이란 빨랫줄과 같은 것이다. 빨랫줄에 온갖 옷들이 다 걸려 있듯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모든 율법이 다 걸려 있다는 말이다.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모든 계명의 표준이다.

야고보서 2: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차별대우하는 것도, 간음자도, 살인자도,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범한 자이다. 그러므로 한가지 죄만 지어도 이웃 사랑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2:10). 반면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갈라디아서 5:14).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 것이다.

2. 이웃 사랑이란 무엇인가?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셨다. “여리고를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 그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기름을 발라 싸매주고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고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 그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내 이웃은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자이다. 성경은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디모데전서 5:8), 믿음의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갈라디아서 6:10).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까지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누가복음 14:12-14). 사람을 차별해서 선별적으로 후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 사랑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 다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들만을 사랑하고자 한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그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자를 대우하고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대한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이웃 사랑의 법을 어긴 것이다.

3. 어떻게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2:12-13).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란 무엇인가? 자유의 율법이란 우리를 얽매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완전히 율법을 준수하셨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아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다. 완전한 율법을 준수한 삶을 active obedience(능동적 순종)라고 말하고 속죄의 죽음을 passive obedience(수동적 순종)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율법 준수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한다(1:25).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시고(예레미야 31:33) 그것이 날마다 제자로서 새 생활을 하기 위한 패턴이 되게 하셨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란 그 율법의 기능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율법 준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필요 없게 되었지만 율법 준수의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율법 순종에 대한 의무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새로운 근거를 제공해 준다. 율법은 더는 규범의 외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 율법 순종은 구원받기 전에는 100프로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구원받은 후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로 율법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 더 이상 율법 준수의 의무가 면제되고 더 나아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여 율법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화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공화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 “공화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화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화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2:13). 이 말씀은 두가지 사실을 강조한다.

첫째, 공화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화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공화를 행하지 않는자, 곧 하나님의 공화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화를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심판은 죄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자라고 말한 것과 같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 때 충만한 하나님의 누리며 살 수 있다.

둘째, 공화는 심판을 이긴다. 우리가 공화를 회복할 때 심판을 이기고 다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공화를 행하지 않는 자가 운명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화를 행할 때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의 핵심은 공화를 베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난 곳에는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긍휼이 넘치는 곳이다. 긍휼이 넘치는 곳에 복음의 역사는 흥왕한다. 세상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긍휼을 경험한 교회가 그 긍휼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나는 긍휼이 넘치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거의 50년전의 일로 기억된다. 그분은 대학생 때는 최고 멋쟁이였고 신앙을 가진 후로는 내면의 멋쟁이가 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고3 딸의 대학 입시를 몇 달 앞두고 자기 동생에게 신장 기증 수술을 한 것이다.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둔 엄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설명이 필요 없다. 긍휼이 넘치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된지 모른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권사님이시다. 지금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매 주 월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뜨거운 기도를 해주고 있으며, 한 번도 빠짐 없이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통해 격려해 주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 얼마나 긍휼이 부족한가? 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에 몹시 괴로웠다. 어제는 두 시간 동안 엎드려 회개 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나도 아직 마음이 무거웠다. 어제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나 굳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2시간 가까이 기도했다.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 이것이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성령을 내 마음에서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자격이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사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주여!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3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14-20)

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 말만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이다.

1. 말만의 믿음

14절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2:14).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If someone claims to have faith)” -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다. 마치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것은 따논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했다. 여기서 유익이란 구원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If someone has faith)”가 아니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If someone claims to have faith)”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이 다른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말했다면 “행함이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는 의미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someone who **claims** to have faith)을 말한다. 말로 믿음이 있다고 떠들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로마서 10:10)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믿는다고 떠들어

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행함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말한 것이다.

야고보는 14절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15-16절을 예로 든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2:15-16).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은 14절에서도 나온 말이다. 14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의미이다. 배고픈 배는 말로 채워지지 않는다. 헐벗은 등은 소원으로 덮여지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선한 소원을 말하는 당신께 감사하지 않는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오직 따듯한 옷을 입혀 주고 먹을 빵을 주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일서 3:18)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2:17).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말이다. 거짓 믿음과 거짓 사랑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성도들을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 이 없다”는 말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인간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베풀므로 사랑의 열매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믿음이 참되기 위해서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하듯이 사랑도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 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임직 받은 한 권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젊은 부인과 그 가족에게 음식을 들고 찾아가 위로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려움 당한 주부가 음식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알고 배려한 그 마음씨가 마음에 찢힌 감동이 되어, 나도 즉각 그 권사님께 배워서 내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두 무릎을 수술하여 고통 당하고 계심이 생각나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시켜 드렸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다. “권사님의 선행은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와 같은 선행이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기도합시다. 참 믿음이 있는 교회는 선행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2:18). 누군가 말하기를 너는 (행함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행함이 있다(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증명해 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 주겠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보인다. 사람에게 나타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난다. 여기서 문제는 행위가 신자들이 의롭게 되는 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증명에 관한 것이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산 믿음이 날마다 맺는 열매이다.

2. 귀신의 믿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2:19-20). 여기 귀신의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참 믿음이 아니다. 귀신과 같은 믿음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귀신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믿을 생각이 없다.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도 잘 알지만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전혀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에 대하여 성경을 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믿는 대로 얼마나 행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다(마태복음 5:16). 실천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요즈음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전모 목사란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가? 더 한심한 것은 그런 목사를 교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고, 이름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돌아갈 정도이다.

야고보 시대나 오늘 날이나 교회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2:18).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주고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 주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4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21-26)

2: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25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는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이다. 곧 이신칭의의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임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구원의 믿음이 행사될 때에 죄인이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은 단회적이고 종결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들이 그 칭의를 받는 수단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거쳐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매우 값비싼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에베소서 2:8).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수단을 통해 우리들이 받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에베소서 2:9).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의 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1. 아브라함의 믿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2:24). 이 말씀에서 오해가 일어나기 쉽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로 오해되기 쉬운 말이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로마서 3:28, 갈라디아서 2:16). 그래서 본문 야고보서 2:24절 말씀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함으로”라는 말은 행위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말하고 있으며,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는 뜻은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의미한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야고보서 2: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낳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 (23, 창세기 15:6).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침으로 증명된 것이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라는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다.

100세나 되어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을 칼로 죽여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야속했겠는가? 인류의 역사에 이처럼 감당키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망령된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을 금했다. 또한 이삭은 장차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생산할 구원의 씨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불태워 죽여 제물로 바친다는 말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순종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비록 번제로 바칠지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히브리서 11:19).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베타라 칭함을 받았나니(23)라고 말한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구원받을 믿음이다. 산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무에 잎사귀가 피고 열매가 맺으면 이미 그 나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이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은 아들 이삭을 드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증거를 보여 주었다. 그랜트 오스본은 11번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 주었다고 말한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100프로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은 100프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믿음이 진짜라고 보여 줄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증거로 행함이 많을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2. 기생 라합의 믿음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서 거룩한 족장 아브라함에서 창녀인 라합을 예로 든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사람, 어떤 신분이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암시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2:25). 히브리서 저자도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브리서 11:31). 더구나 이 믿음의 여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의 한 사람이었다(마태복음 1:5). 라합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에 대한 영광스러운 증언이다.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신자였다.

여호수아서 2: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기생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를 들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은 이미 신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탈출을 도왔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위험을 감당해야 했겠는가? 그 일이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의 사자를 도울 수 있는 행동이 나왔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도울 때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개인의 구원만을 가져 온 것이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전에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 “예루살렘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모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른들이 모이기에는 그 건물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그래서 몇몇 헌신적인 사람들이 새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은 돈을 드려 예배당을 건축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새로운 건물을 구한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로 새 건물로 교회가 옮기게 되어 학생 중심의 교회가 일반 어른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교회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은 26절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2:26). 이 말씀은 17절과 20절과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생명의 원천인 영혼이 없는 몸, 무가치하고 악취가 나는 송장과 같다. 올바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즉 선한 행실로 그 결과를 내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

으면 기독교는 단지 한 사상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자연인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창조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Part III

야고보서 3장

1

혀를 길들이라 I (야고보서 3:1-5a)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3: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 하나니 3: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인간의 외상은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치료하면 쉽게 아물어진다. 그러나 말로 입은 상처는 훨씬 더 무섭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혀를 길들이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루겠다. 이 장은 1-5상반절까지만 다룬다.

1.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1, 2).

야고보는 혀에 대해 교훈을 하면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로 시작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1). 아마 이 말은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이 필요하다. 아무도 선생 되기를 싫어하면 누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교회도 선생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무조건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일 것이다.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는 배우지 않고 항상 가르치기만 좋아하면 실수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하지만, 선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말의 실수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혀는 강력하고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배우기를 원해야 한다. 가르치고자 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배우고자 하면 겸손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배우기를 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2).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무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숙함”이나 “신실함”을 가리킨다. 선생은 무엇보다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속없이 할 말 안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이요 유치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자라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에 특별히 훈련을 해야 한다. 야고보는 사람이 말을 절제할

수 있다면 온몸을 절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죄악된 행동이나 충동은 종종 혀에서 불이 붙어 시작되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에 실수를 함으로 얼마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가를 누구나 다 경험했을 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허히 나는 참으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말에 실수한 사람도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내가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쉽게 잊어 버리고 남이 나에게 상처 준 말만을 생각하고 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이런 문제로 어려워진 일이 많으니까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우리는 서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한 그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마음이 상하면 완전히 토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자. 말꼬리 잡고 항상 다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의 실수는 어떤 성격의 문제도 아니요 메너의 문제도 아니요 죄의 문제이다. 죄가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것에 너무 오래 집착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3-5상)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3:3-5). 말에 제갈을 물림으로 온 몸을 다스린 것처럼 사람도 혀를 통제하면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배도 아주 작은 키로 사공의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운전하듯이 사람의 혀는 작지만 온 몸의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다.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혀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말을 잘 한다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 속 깊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해 놓고도 쉽게 그 잘못을 잊어 버릴려고 하고 또 그 잘못을 합리화해 버릴려고 한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 두느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 한번 실수한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담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문을 통해 전쟁터로 나간 병사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다시 그 성문으로 돌아올 수 있으나 한번 나간 말은 다시 인간의 영혼으로 돌아올 수 없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한 이 말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해야 한다. 특히 화가 났을 때의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물론 농담을 할 때도 그 농담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한다.

남이 듣지 않는다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함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실컷 했는데 그 말이 여과 없이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옮겨진 경우가 있다. 그 얼마나 민망한 일인가?

내가 대학 시절에 실습시간이었는데 한 교수가 같은과 동료들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다. 그런데 그 비난 받은 교수는 나의 사촌 형이었다. 더 심한 경우는 아주 신랄하게 동료 교수를 비난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그 교수의 아들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다. 비록 내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이 말을 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말을 잘 함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함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대학 시절에 교육학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하루는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운동장 가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 운동장 가에는 포플러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대답은 진정으로 교장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하도 그 아이가 정색을 하고 말을 하니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은 아주 큰 칭찬을 해주었다. “그래! 운동장 가에는 포플러 나무가 있지! 그 나무가 얼마나 멋있느냐! 너 참 관찰력이 예민하다. 너 정말 훌륭한 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한다. 원래 그 아이는 문제아일로 공부도 항상 끌리고 숙제도 안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였는데 그 후부터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여 나중에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되었다고 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다.

에베소서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
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
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스런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유익한 말, 가치 있는 말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말의 성향이 있다. 어떤 사람의 말의 성향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깊은 감명을 주는 말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증오하는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이 있다. 전자의 사람으로 떠오르는 것이
낫지, 후자의 사람으로 떠오르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전자의
사람을 만나면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후자의 사람을 만나면 금방 피하
고 싶은 생각이 든다. 전자의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지만
후자의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매우 절망적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기 위하여 언어 생활의 깊은 회개
가 필요하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언어 생활에 회개해야 할 것

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갖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3:2).

2

혀를 길들이라 II (야고보서 3:5 하-12)

3:5b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3: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3: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3: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3: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3: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난 장에 우리는 혀를 길들이는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두가지를 말씀드렸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말 한마디가 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므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오늘은 다른 두 가지 명심해야 할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혀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혀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3:5하-8)

혀의 큰 능력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위험을 알았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절제되지 않은 언어가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한다.

첫째 혀는 불과 같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3:5b-6). 이 불은 작지만 맹렬하고, 멀리 있는 까지도 모두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씨는 아주 작지만 몇만 정보의 산의 나무를 다 태우는 것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실로 우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혀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또한 이 불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하였다. “생의 바퀴”라는 표현은 특이한 표현이다. 야고보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전 과정,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에게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 한마디로 그렇게 오래 사귀어 오던 친구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까운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로의 말이 오히려 큰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다. 실로 말은 불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심함 없이 혀를 사용해 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이와 같은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살면서도 아직까지 그래도 큰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혀를 길들여야 하겠다.

특히 교회에서 혀를 사용하는 데 아주 조심해야 할 것 하나를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옮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옮길 때는 대부분 부풀려서 전해지거나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 전하는 게임이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사람이 “빌라도”는 말을 하고 그 말을 계속 옆의 사람에게 전하게 한다. 그런데 그 말이 마지막 사람에게는 “빈 라덴”이라는 말로 와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옮기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을 전하고자 할 때는 잘 여과해서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회는 흔히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는 말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은 옮겨질 때마다 그 힘이 몇 배의 힘으로 파괴력을 발휘한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누가 그러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

둘째, 혀는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혀를 훈련하고 절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

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3:7-8).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창세기 1장), 그들에게는 혀를 다스리는 능력은 없는 것이다. 오직 혀만 사람의 통제 밖에 있다. 이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며, 이것은 마치 “독사의 혀”와도 같은 것이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절제되지 않은 언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우리는 이 시간 각자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이 혀로 수 많은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아직도 그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안에 모든 악의 근원인 죄를 철저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죄 값을 치루신 분이시다. 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거듭날 수 있다.

2.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운 말을 해야 한다(3:9-12)

야고보는 우리에게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절제되지 못한 언어가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3:9-10). 하나의 혀로 이와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고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하나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모순된 언어는 1:8과 4:8에서 책망을 받은 것처럼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일관성 없는 언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를 자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3:11-12).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는 샘이 있을 수 없다. 감람 나무는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 다운 말, 곧 단 물을 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쓴 물, 곧 부정적인 말, 상처 준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단 물, 곧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할 단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단물을 낼 수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이야말로 단물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되리라 믿는다.

얼마나 우리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심한 말로 버릇을 고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서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진다.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참으로 기도하는 입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눈물의 기도로 남편을 변화시키는 여인을 생각할 때 항상 큰 감명을 받는다. 자녀들에게 많은 말보다 기도하는 엄마의 입술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 믿는다. 기도하는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기도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요, 기도의 입술은 긍정적인 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믿는다. 파괴적인 혀의 힘을 기도하는 혀로 바꾸어 큰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물을 내는 입술은 전도하는 입술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혀는 얼마나 아름다운 혀인지 모른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온다. 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해방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길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였다. 복음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사람도 늘 복음을 들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가?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쁜 소식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오히려 부족하다.

혀를 길들이지 않는다면 그 혀로 말미암아 개인이 파멸을 당하고 가정 이 파멸을 당하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특별히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을 명심하자.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보다 배우는 마음을 갖자. 한마디 말의 영향력은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혀는 불과 같이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다운 말을 하도록 힘쓰자.

3

두 가지 지혜(야고보서 3:13-18)

3: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3: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3: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 상적이요 정욕 적이요 마귀 적이니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3: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3:18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2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혀만을 조심하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혀는 큰 위험의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야고보서 3:13-18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참된 지혜를 품을 수 있기를 권면한다.

1. 참된 지혜

여기서 먼저 참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3:13). 참된 지혜는 지적 사고의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 새로운 본성을 입게 된 그리스도인은 경건과 거룩한 삶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생활이 각 방면에서 갱신된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지적 사고의 틀 속에 박힌 것이 아니라 실천과 밀접한 것이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말만이 아니라 경건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나 말들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행함이 참 믿음을 보여 주듯이 행함이 참 지혜를 보여 주는 것이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단순히 선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나타나야 한다. 아무리 참되고 선한 행위라도 그것이 실천하는 방법은 강제나 폭력이 되면 안 되고 온유가 필요하다. 온유란 설령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대항하거나 다투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태도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베드로전서 2:19).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강제하거나 분을 발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은 거듭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주장했던 불경건한 감정들에서 죽어야 한다. 그런 육신에

속한 감정들은 신자의 모습을 추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능력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윤리적인 행실이다”(얼 켈리). 이 지혜는 성령에 의하여 자라며 일상생활의 각 부분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이다. “참 지혜는 말이 아니고 행위이다. 온유는 지혜에 자연히 따라온다. 따라서 온유함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커티스 보간).”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참 지혜가 아니다.

2.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거짓된 지혜이다. 거짓된 지혜는 과소평가하거나 사소한 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3:14). 우리 안에 시기, 다툼,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지혜이다. 시기, 다툼, 자랑은 자아만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될 수 없고 거짓된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언제나 거짓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회개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적인 지혜의 출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3:15). 거짓 지혜의 출처는 마귀이다.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거짓된 지혜다. 그러므로 거짓된 지혜는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짓 지혜의 출처는 세상적이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마음에서 온다. 이 지혜는 독립적인 인간의 자존적인 정신이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빌립보서 3:19). 아무리 그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출처가 제한된 피조세계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영국의 전 노조 위원장이었던 스타길이라는 사람의 연설을 한 번 들으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끓어오른다고 한다. 그 연설을 듣고 독일의 히틀러가 전 독일을 마귀적인 힘으로 다스릴 힘을 얻었다고 한다. 우리를 충동해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 지혜는 분명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또한 거짓 지혜의 출처는 정욕적이다. 그러므로 거짓된 지혜는 다툼과 분열을 가져온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자기는 정의 편에 섰다고 하면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증오심이 불타고 싸우고 분리하는 데 앞장선다면 그것은 정욕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세속적인 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3:16). 깨어진 가정, 깨어진 법, 깨어진 약속, 혼란, 갈등, 전쟁 등은 시기심과 이기적 야심으로 나타나는 세속적인 지혜에 의해 조장되고 야기된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했는지를 알게 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참으로 세상적인 지혜에서 출발한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3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3:17). 지혜의 근원은 세상이 아닌 하늘 위다. 사람한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한테서 나온 지혜다. 1:17을 보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모든 선한 것들은 하늘의 신령한 출처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사들이다.

참된 지혜의 특성이 무엇인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3:17).

첫째는 성결이라고 하였다. 성결은 청결이다. 청결의 특성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마태복음 5:8).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비결이 청결이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화평이라고 하였다. 세상적인 지혜는 다툼과 갈등이나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항상 누구와도 화평을 가져온다. 화평은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특징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셋째는 관용이라고 하였다. 참 지혜는 주님께서 얼마나 어리석고 유약한 우리 자신들을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기억한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당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측면이 있다.

넷째, 양순이다. 양순이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여 수용적인 정신을 가진 마음을 가리킨다. 양순은 겸비한 성품을 지녔으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추켜 올리지 않는다. 양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

다섯째, 긍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적극적인 동정이다. 긍휼은 마음의 자세이면서 실제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참 지혜는 이론적인 상아탑의 지적인 활동이 아니다.

여섯째는 선한 열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과 삶을 채우고 속 사람과 바깥사람을 충만케 하여 굶주린 이 세상에서 풍성한 실과를 맺게 한다.

일곱 번째, 편벽이 없다. 여기 편벽이란 말은 야고보에서만 나온 단어이다. 학자들은 “편벽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현대적인 의미의 “공정”이기 보다는 주님과 복음의 진리를 담은 내적 성향을 가리킨다고 본다.

4.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결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3:18).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은 마치 땅에 씨를 심어 수확을 거둔 것처럼 바람직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에 대한 열매가 있기 마련이다.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바람직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겉보기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위를 보면 자기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신앙만이 참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나 단체들을 보면 싸움을 자주하고 헤어진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신학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참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는 자라면 항상 온유해야 할 것이요 다툼보다는 평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설령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대항하거나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대해야 하며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유라는 성품이다. 우리 주님도 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온유한 자(마태복음 11:28)라고 말씀하셨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를 살펴보았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다. 위로부터 풍성한 지혜를 덧입어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

Part IV

야고보서 4장

1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 (야고보서 4:1-6)

4: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4: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4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4: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친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발견한다. 어떤 친구와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놀고 싶고, 쾌락을 좋아하고, 죄 짓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남 허물을 찾고 싶고, 그래서 삶이 점차로 망가지게 된다. 반면에 어떤 친구와 같이 있으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고, 남을 칭찬하고 싶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갖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친구를 소개한다. 우리는 어떤 친구와 더욱 가까워져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기 바란다.

1.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세상 친구란 세상의 표준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이다.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는 가치관과 사상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참여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세상에 속한 것들의 가면을 벗긴다.

첫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적인 삶을 산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4:1).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정욕적이 되어 갈 때 그 특징은 다툼을 좋아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정욕적이 될 때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이기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이 될 때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정욕적이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탐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다. 심지어 살인으로 이끌기도 한다.

둘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4:2).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를 못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자원과 능력으로 산다. 제한된 자원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그래서 다툼이 생긴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셋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4:3). 기도를 해도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대접하고자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탐심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얻는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없다. 항상 결핍만 있을 뿐이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단호하게 책망한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4:4).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관계로 비유한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이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된 사람은 간음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다고 말한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본 남편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간음한 여인을 사랑할 남편은 이 세상에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친구가 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과 벗된 삶을 살므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 지옥을 맛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대로 사는 정욕적인 삶을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 힘들고 주일 성수도 힘들고 헌금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인색하다. 봉사 생활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한다. 봉사 생활도 너무나 기쁘다. 전도도 너무나 기쁘다. 예배와 찬양이 너무나 기쁘다.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든지 하나님과 벗이 되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것들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24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

일세기에는 벗이란 한 영혼으로 간주 되었고 이것은 “같은 태도와 가치관과 인식을 품고서 사물을 같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다.

첫째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4:5). 하나님의 친구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영이 있을 때 우리를 시기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만약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한다. 그것이 시기이다. 시기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독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한 도우심을 계속 주신다. 4절에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한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크다. 이처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친구의 자격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야고보서 2:23, 이사야 41:8).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가? 즐겁게 영접하고 정성을 다하여 송아

지를 잡아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한다. 그는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부담 없이 도움을 구한다. 그는 친구처럼 부담 없이 소위 에누리 기도를 한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망설임 없이 순종했다. 사랑이 없이는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으므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둘째, 하나님의 친구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4:6).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한 마음이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칭찬하기를 좋아한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칭찬이라도 듣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다.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바보 취급을 당해도 다만 기쁠 뿐이다.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주신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더욱 하나님과 멀어

질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세상의 친구가 되느냐 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친구는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

겸손의 축복 (야고보서 4:7-10)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4: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4: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4: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난 주일 우리는 세상의 친구와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겸손한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오늘은 참으로 겸손한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겸손은 나약한 것 같지만 참으로 강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이요 겸손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

1. 겸손은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4:7).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다. 사람을 마귀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대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있을 때를 보면 서로 마귀라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를 본다. 사람이 마귀가 될 수 없다. 혹 사람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

마귀와의 싸움은 혈기로 싸우면 안 되고 겸손으로 싸워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종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는 뜻이다. 복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의지의 행위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지혜나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력을 인정한다.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자기 주장을 하지도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나약하거나,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게 함으로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다(베드로전서 5:8). 사단은 도처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혈기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싸울 때 마귀는 물러가고 만다.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마귀라고 생각하여 쇠고랑을 채워 무덤에 추방시켜 버렸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형편은 더욱 심해져 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그 사람에게서 추방시키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도 마귀에 지배당하여 원치도 않는 행동을 하는 형제를 보거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서 벗어나도록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면 그는 마가복음에 나온 사람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는 사랑과 겸손으로 마귀에 지배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일을 하는 곳이다.

안이숙 사모님은 감옥에서 미쳐서 독방에 갇혀 있는 만주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녀와 함께 함으로 그녀에게 온갖 구타를 당하면서도 그녀를 사랑으로 품어 그녀를 구원하게 된다. 그녀를 붙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안이숙 사모는 사랑과 겸손과 기도로 대적하여 굴복시켰다. 한때 이분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 모임에 속해 있던 전국 대학생들과 세계에 흩어진 가족들에게 읽혀서 세계적인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 때 태어난 내 딸을우리는 안이숙으로 이름 지었다. 1985년 2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 길에 내 딸은 안이숙 사모와 감격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나의 친구 목사는 이 책을 출판해서 엄청난 판매 수익을 올려 기울어져 가는 출판사를 살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기독교 출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마귀와 싸워 이긴 한 사람의 이 놀라운 역사는 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2.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4:8). 신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그의 임재를 맛보며 사는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다(시편 73:28).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해야 한다.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 기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브리서 10:22)고 했다.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의미이다.

둘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레위기 10:3).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해서 나도 거룩해야 한다.

셋째,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편 95:6).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이사야 57:15).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요즈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경험을 많이 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젠가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하여 그날따라 일찍 자기 위하여 잠시동안 기도하게 되었는데 한 시간 이상을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자 피곤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꼼짝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한다.

3. 겸손은 경건으로 인도한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4:8b-9). 겸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 볼 때 자신은 죄인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죄악된 자신으로부터 성결케 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하다. 죄인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근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인가를 안다(시편 6:6).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했다. 우리는 괴로운 일을 만나거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슬퍼하며 울 때는 있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 울 때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너무나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교만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눈에 잘 들어오지만 자기의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는다. 남의 죄는 물러가라고 외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누가 물러가게 하겠는가?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슬퍼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함이 항상 가슴 아프다. 항상 복잡하게 살지 않고

단순한 마음을 품는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한다.

데이빗 브레네드는 인디안들 가운데 선교하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의 일기를 보면 매일 매일 그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글로 가득차 있다. 그는 인디안의 아버지요 성자로 추앙 받은 사람이지만 항상 그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메시지로 수 많은 인디안들을 구원하였다.

4. 겸손은 자기를 낮추게 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4:10).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데로 내려 오셨다. 말구유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스올 곧 구렁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다(이사야 14:12-15). 마귀의 꾀임에 빠진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자신들을 두려다가 낙원에서 쫓겨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인류의 비극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의 싸움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문제만큼은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것이 겸손이 아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굴복할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 참으로 우리는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높이하고자 한다면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고 결국 높임을 받지 못한다.

겸손의 덕은 이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온다. 마귀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경건에 이르게 하며, 자신을 낮추게 한다. 겸손은 얼핏 보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인즉 자신을 부요케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이 겸손의 덕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덕이 아니고 참으로 은혜받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덕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의 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3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4:11-12)

4: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4:1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형제를 비방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또한 서로 비방하게 될 때 피차에 망하게 된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서로 비방할 때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공동체가 망하는가를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요즈음 대선을 앞두고 서로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사회를 삭막하게 해 주고 있는가? 당신의

가정은 서로 비방하는 일은 없는가? 당신의 교회는 서로 비방하는 일이 없는가?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서로 비방하는 일이 없는가? 이 비방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비방해서는 안 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서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사회가 보다 복되고 기분 좋은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 주고 있다.

1.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4:11).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명높게 불순종하는 교인에게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고린도전서 5-6장). 또한 다른 형제의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에 대한 올바른 판단까지도 그릇되다는 말은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는 바른 판단력으로 형제를 평가하고 바로 잡아 주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문제를 다룰 때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관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한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

마태복음 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것은 악한 동기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방하다는 말로 번역한 헬라어(Katalaleite 카타라레이테)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모든 형태의 발언 행위를 말한다. 비방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소곤소곤 하는 것과 뒷전에서 중상하는 것이다. 소곤소곤 하는 것은 은밀히 형제의 험담을 늘어 놓은 것이고, 중상은 공개적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다. 비방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명성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거짓 고소를 한다는 뜻이다.

비방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억울한 비방을 당하여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비방함으로 그들에게 무서운 고통을 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방은 정말로 추방시켜야 할 가장 악한 행동이다.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가 없고 온전하신 분도 이 땅에 오실 때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다.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야고보는 이웃을 판단하는 것을 본문 12절에 꾸짖고 있다. 바울도 로마서 14:4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서 야고보의 말을 들어 보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4:11).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고 하였다. 또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라고 하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지 마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판자로서 앉아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다. 사단은 원래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요한복음 8:44). 그래서 사단의 하는 짓은 거짓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이간질 시켜서 죄짓게 하고 살인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세기 3:5). 이 말 속에는 거짓이 담겨있다. 하나님은 결코 선악과를 주신 것이 인간이 자기와 같이 높아질까봐서 시기하여 준 것이 아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영원히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참된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여자는 그 비방을 거절하지 않고 동조함으로 인류의 비극을 가져왔다.

우리는 사단의 충동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신이 나서 비방한다. 그러나 동조하지 않게 되면 그만 멧쩍어서 풀이 죽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비방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준행해야 할 율법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2:8에 나온 최고의 율법 이웃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비방을 금해야 할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황금율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레위기 9:17-18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의 계명 자체가 특별히 판단과 비방을 금지한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4:11). 율법을 판단하여 비방하면 재판자라고 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될 때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게 된다. 내 나름대로 율법을 정해 놓고 그 율법에 맞지 않으면 비방한다.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겠다. 내 4촌형은 아주 준법 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대부분 규정 속도를 지킨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 온 차들은 계속 경적을 울리며 쌍욕을 한다. 그러면 차를

멈추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물으면 왜 빨리 안 가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규정 속도를 지킬 뿐이라고 말한다. 자기 나름대로 빨리 가야 한다는 율법을 정해 놓고 규정 속도를 지킨 사람을 비난한다. 남을 비난한 자는 바로 이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한다. 율법 준수는 하지 않고 재판자가 되어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에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방한다. 그런데 그 자체의 행위가 거룩한 최고의 법 이웃사랑의 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형제 비방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

2. 형제 비방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4:12).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례하고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험악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비방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방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고 결국 운명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히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 주실 것이다.

나는 가끔 문제 투성이인 자녀, 아내, 남편,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소연 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 준다.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준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하는 동정심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쳐 주실 수 있을 텐데!!! 남에게 호소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고쳐 주실 하나님께 더 많은 호소를 해서 그런 남편, 자식, 아내,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서로 비방하는 것은 서로가 망한다. 그러나 나는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판관이 되지 말고 다만 율법의 준행자가 되자. 율법의 준행자라는 최고의 율법 이웃 사랑을 준행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대신에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능력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으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4:11-12).

4

장래에 대한 인생 계획 (야고보서 4:13-17)

4: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4: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4: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4:16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4: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결혼 20주년에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로 필립핀 여행을 갔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과 무엇인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한국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 가방이 너무 커서 기내에 들어갈 수

없으니 비용부담이 없이 짐칸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통역을 해서 도와주었다.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베트남에 호텔을 계약하고 오는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내는 그 분의 용기와 도전 정신에 대단히 감동을 받고 크게 칭찬을 해주었다. 3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도전 정신은 대단히 본받을 만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린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야고보서 4:13-14).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중에 베트남에 가서 머물면서 호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처럼 들린다. 다시 말하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너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짧은 인생인데 무슨 돈을 벌어 보겠다고 헛된 계획을 갖느냐 하는 것처럼 들린다.

내가 은퇴를 할 때 한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으니까 이제 편히 쉬면서 살라는 것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죽을 날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 무슨 일을 더 해보겠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시오. 적당하게 쉬고 그럭저럭 살면서 여행이나 하며 즐기다가 천국 갈 준비나 하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야고보가 13절 14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

그러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서 보면 13-14절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4:15-16). 이 말씀에서 볼 때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나 인도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나 인도함이 없이 그런 자기 생각을 말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요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했다(16).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간이 주께 자기 스스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만하고 악하다는 것이다. 당신의 수명과 성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것은 오만한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도 해야 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4:14). 이 말씀의 뜻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인생이니까 속세를 등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15절에서 우리는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4:15).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둘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1.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우리는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는 선하고 현명한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적이 아닌 하나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악마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안개와 같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겐세마네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그런 다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나는 지난 주간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기쁜 선물”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에서 나는 죽음이란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개념이 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 성도들끼리 깊은 연합으로 설명해 준다(요한일서 5:19-21).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그 개념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사는 동안 힘써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특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더욱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 수 있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빌립보서 1:23). 바울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을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분리해 내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죽음은 슬프고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사람들과 결속시켜 주리라 생각이 더 커진다면, 죽음은 우리와 인류의 하나됨을 축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죽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 시킬 수 있다. 죽음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일 수 있다”(헨리 나우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4:14). 이 말씀은 우리를 허무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 없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다.

2.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그렇다면 당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겠는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4:15). 이 말씀에 분명한 답이 있다. 주의 뜻이면 ...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2000년 4월, 두명의 여 선교사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죽었다. 루비는 여든이 넘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한가지 큰 일에 온 인생을 쏟아 부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 로라는 여든을 바라 보는 미망인이자 의사로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왔다. 그들이 타고 간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손되었고, 자동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으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는 리더스다이제스트(Readers Digest) 1998년 2월호에 실린 이야기다. “5년 전에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판타고다에서 살며, 9미터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껍질을 모으면서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전자의 두 사람은 한가지 열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했다. 이들이야말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인생이었다. 주의 뜻대로 산 위대한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삶이었다.

두 번째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고 그 성공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있다.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과연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는가?

또 다음 두 사람의 예를 생각해 보자.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만큼이나 크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중에 상황이 어렵게 되자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제사를 스스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과 전리품으로 얻게 된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왕과 좋은 것을 아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자 자기를 높여 달라고 사무엘에게 사정을 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불타 그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그 아들과 함께 죽고 그의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다윗은 키가 작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곰과

사자의 뺨을 주먹으로 쳐서 그들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면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보다 두 배도 더 큰 골리앗을 물뱃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서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준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그들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주었다. 적장이 화친하러 왔을 때는 환영했다. 사울이 죽자 당장 사울의 나라를 진멸하고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7년 6개월이나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눈물이 그의 침상을 적을 때까지 회개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 뜻을 묻고 결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 두 사람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께 온전한 미래를 맡기는 사람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과의 대조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그의 미래를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하자.

우리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 버릴 인생이라고 해서 허무주의적인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쾌락주의에 빠져 살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이것 저것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 저것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많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을 성취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윌리엄 케리가 말한 대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18세기에 미국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책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기록해 준 책이다. 이 책을 쓴 조나단 에드워즈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견고히 하려고 수십 개의 결심 노트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결심 5: “절대로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겠으며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결심 22: “내가 다음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최대한 쌓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활력과 열의와 완력까지 다 하겠다.”

20대 때 가진 이와 같은 결심들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미국 역사상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한국 교회에도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는 성경을 제외하고 그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스승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만나고 (물론 책을 통해서 만남) 30년 동안 그를 연구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 유익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그가 이와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주님께 그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의 두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 하나의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

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다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의 책은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이다. 이 두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큰 도전을 주는 책이다.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기뻐하기 위한 삶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4:15).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이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해 주실 것이다.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신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Part V

야고보서 5장

1

부의 유익과 위험 (야고보서 5:1-3)

5: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5: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5: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말씀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5:1).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가? 그러나 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부자에게 임한 경고를 생각할 때 무섭지만 그러나 부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무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 없이 살았다. 추운 겨울에 변변한 내복 한 벌 없어 얇은 옷을 입고 살았다. 겨울철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 순간 얼마나 추위에 떨었던가? 밥을 먹고나도 배가 고프니 하루 종일 배가 고팠다.

길가에서 파는 붕어빵, 자두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돈이 없어 사먹지 못하고 침을 삼 지나 다녔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10여년전 창고 대 매출에서 만원 주고 두꺼운 겨울 옷을 사서 수년을 입고 있는데, 입으면 어떤 추위에도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이제 최소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은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지 않는가? 가난보다 부가 훨씬 좋다. 이렇게 부가 좋지만 부를 잘못 쓰면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를 주신 것은 부를 잘 쓰라고 주신 것이다.

1. 부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누리고 부를 아주 유용하게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가 부하기 때문에 사로잡힌 롯을 구하는데 318명의 사병과 전 재산을 사용했다. 요셉은 부를 통해서 80명 가까운 대가족을 구원했고, 수많은 민족을 굶주림에서 구원했다. 다윗도 엄청난 부를 헌금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 그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난 헌금을 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보면 금 십만 탈란트와 은 일백만 탈란트를 헌금했다. 29:4에서 보면 금 삼천 탈란트와 은 칠천 탈란트를 더 드렸다. 다윗이 혼자 드린 헌금이 온 백성이 힘을 다하여 드린 헌금의 25배가 된다고 한다. 신약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부요하게 치렀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부자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조지 물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선한 일에 돈을 쓰기를 기뻐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아사업과 선교사업을 이룬 사람이다. 오늘날 날에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많은 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 학장과 개인적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재정을 조달하여 학교를 잘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부를 필요한데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그들에게 돈을 가치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들은 즐거이 헌금한다고 했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은 선한 부자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많이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돈 한 톨 없이 6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때 가난한 학생들과 더불어 캠퍼스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의 비전으로 어떤 대교회도 해낼 수 없는 선교 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다.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많은 선한 부자들을 보내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이루게 하신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온마음 교회도 100개의 교육관을 만들기 위하여 잘나가는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하신 어떤 분이 지금은 중견 기업가가 되어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돈 벌기 원하는가? 선한 목적을 가지라. 하나님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신다.

2. 부를 잘못 쓴 사람들.

이처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한 일에 큰 도움을 주지만 부를 소유한 자가 그 부를 잘못 사용하면 큰 위험이 따른다.

첫째, 심판의 위험이 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5:1). 부를 잘못 사용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한 통곡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다.

부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한 통곡을 하게 될 이유는 돈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을 위해 쓰지 않기 때문이다. 부는 자기만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를 사용할 때 그 부의 가치는 더욱 크게 증가한다. 경제에 있어서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이 처음 먹는 밥 한 숟가락은 아주 가치가 크다. 그러나 배가 부르 후에 마지막에 먹는 밥 한 숟가락의 가치는 훨씬 떨어진다. 그러므로 100이라는 부를 가진 자가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가치는 100 밖에 안 되지만 10사람에게 10씩을 나누어 주면 각각 받은 10이 100의 가치를 내서 1000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100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의 그 부의 참 주인인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렇다고 강제로 100의 부를 10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공산주의다. 그러나 그 부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50은 자기가 쓰고 어려운 5사람에게 10씩을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또한 중요한 것은 부는 다 씌므로 가치가 있지만 반드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 100이라는 부를 남에게 나누어 줄 뿐 아니라 투자할 부는 남겨야한다. 예수님은 므나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부는 장사하여 유익을 남기는 것이 선이라고 하셨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를 투자해서 큰 부를 가져오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돈 많은 기업들은 국가와 사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다만 문제는 부를 가진 자가 그 부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족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살면서 100의 부를 자기 혼자 누리고 살았다. 문간에 있는 거지에게 밥한 그릇을 대접하지 않았다. 그런 자에게 주어진 심판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누가복음 16:25). 부자가 받은 심판은 극한 갈증 가운데 물한 방울도 그 혀에 찍어 줄 사람이 없는 고통중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만족과 쾌락이 전부이고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울고 통곡하라”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쾌락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누릴 행복이 전혀 없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의 울부짖음 뿐이다.

둘째, 부를 땅에 쌓아 둔 사람들은 그 부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5:2-3). 피조물로서 가장 고상한 행위는 타인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나 혹은 타인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조차 쓰지 않고 쌓아 두기만 한다. 이것은 큰 죄이다.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쌓아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이 썩도록 쌓아 둔다면 이것은 큰 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부를 다 빼앗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 결국은 그 모든 재물을 쓸모 없게 망가뜨리신다는 뜻이다. 사람이

섭리자의 손에서 재물을 가로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빼앗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 재물에 녹이 쓴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다는 죄의 증거가 된 것이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나타내어 현재의 재앙이나 또는 앞으로 임할 영원한 형벌을 가리킨다(시편 21:9).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 재물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것을 함축한 말이다.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차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로마서 2:5).

우리는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하여조차 쓰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은 죄요, 무서운 형벌이 임한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재물을 즐기면 즐길수록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지상에서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할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소망, 그런 영원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셨다.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쌓아 두는 것보다 어떻게 재물을 잘 쓸 것인가 연구할 때 적당한 곳에 재물을 쓰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2

부에 대한 책임 (야고보서 5:4-6)

5: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6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내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부를 얻게 된 사람은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1. 나의 부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5:4). 품꾼은 낮동안 부자를 위하여 일하고 저물 때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로서, 끈 돈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긴 후 부유한 지주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날 번 것으로 그날 양식을 삼았기에 그들은 간신히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품꾼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 다 굶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살인과 같은 것이다. 부자가 임금을 주지 않음으로 썩도록 재물을 쌓아 둠으로 품꾼을 굶어 죽게한다면 이것처럼 잔인한 것이 없다.

그래서 레위기 19:13절과 신명기 24:14-15에서 샅을 즉각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부한 자들이 자기의 부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한 고용인들의 임금을 착취한 자들이 많이 있다. 모 항공사의 대표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 회사의 돈을 착취하고 고용인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그 회사는 망하여 넘어가고 본인은 감옥에 간 사건은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크고 작게 이런 일들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가?

비록 샅꾼이 아무 힘이 없어 부자에게 대항하지 못할지라도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신다는 것이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4). “만군의 주”는 고난 받고 억눌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절대 권능의 주라는 뜻이다. 힘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학대한 자는 항상 그 배후에 전능자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남의 눈에 피흘린 고통을 통해서 부를 이룬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

2. 부를 사치에 사용하지 말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5:5). 부자들은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사용하지 않고 속물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기 쉽다. 자선을 베풀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누어주는 일에 매우 인색하고 완고하면서도,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들의 재산을 얼마든지 아낌없이 사용하는 경우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 이 말은 술과 음식과 의복에 있어서 감각적인 진미와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본성이 매우 쉽게 따라가는 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방탕함과 술취함을 조심하라”(누가복음 21:34)고 말씀하셨다. 이런 죄는 모든 사람에게 빠지기 쉽지만 주로 부자가 그런 죄에 빠지기 쉽다. 사치, 교만, 게으름, 그리고 포식하는 것 등이 소돔의 죄악이었는데, 이런 죄들은 대개 부유한 집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오락으로 가득한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된다.

특히 “땅에서”라는 지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할 수 있는 한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온갖 재미에 취해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말한다. 지상에서 사치와 쾌락으로 생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세상에서의 행복은 더 이상 없다. 두 번의 천국은 없다. 지상에서 사치와 쾌락에 살았다면 죽은 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25에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라고 했다. 땅에서는 그들이 웃지만 하늘에서는 울부짖는다. 이 땅은 노동과 수고의 장소다. 우리는 리워야단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방종하여” 이 단어는 정욕적인 과부에 대하여 사용된 말이다(디모데 전서 5:6). 이런 자를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방종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완고하게 하고 죽어 가게 만든다. 사치는 육신적인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조소를 동반한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말은 욕망을 키웠다는 말이다. 이것은 바울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함”(로마서 13:14)이라는 말과 똑 같다. 마음은 정욕과 욕망의 처소다.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욕에 맡기는 것이다. 마음이 살찌우게 되면 우둔하고 미련하게 된다. 당나귀를 흔히 우둔한 짐승으로 말하는데 당나귀는 심장이 살찌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누가복음 21:36)고 말씀하신다.

“살육의 날”이라는 말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절기의 날에 화목제물을 먹는 축제의 날을 의미한다. 레위기 7:15-16에서 보면 예배자들은 화목제물의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친구들과 함께 먹었다. 그러므로 살육의 날은 축제의 날을 의미한다. 특별한 때 잔치를 베풀어 먹는 것은 좋지만 매일 매일 이와 같은 축배를 하면서 마음을 살찌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부의 권력을 악용하지 말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5:6). 부자와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은 아무 죄 없는 자들을 그들의 부와 권세로 법을 이용하여 정죄하고 죽이는 죄를 범한다고 야고보는 책망한다. 성경은 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재판관들, 소위 법기술 자들에 의하여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재판관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한다.

“울레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시편 94:20). 죄 없는 나봇은 이세벨에 의하여 거짓 죄를 뒤집어 쓰우고 죽임을 당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겼다(열왕기상 21:5).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빌라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이라는 가장으로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일이 자행된다. 있는 죄는 감추어 주고 없는 죄도 죄를 만들어 내서 감옥에 보내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감옥에 온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감옥에 오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영화의 주인공도 아내와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게 되었다. 실제의 살인자를 알고 증언해 줄 사람이 나왔는데도 그를 형무 소장이 사람을 시켜 죽임으로 그는 영원히 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된다.

오늘날에도 표창장 하나로 180번의 수사를 받아 끝내 4년형의 벌을 받아 감옥에 있는가 하면 수십억을 횡령하고 수백억의 위조 잔고증명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대선 주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수하의 검찰을 통하여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대중 매체를 통해서 선언을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리의 수호에 앞장 서야 할 개신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자를 변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이 의미가 무엇인가? 비록 그는 연약하여 대항할 수 없었으나 억울한 자의 울부짖음을 저 하늘에 계신 재판관이 듣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이다. 압제가 피흘리는 데까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자 한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시편 9:12).

또한 피 흘린자의 억울함에 대한 울부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10). 무죄한 사람의 피는 보복을 호소하며 울부짖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모든 악을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시고 우리를 압제한 자들이 누릴 수 없는 영광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부를 바로 사용할 때 부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축복이지만 부를 잘못 사용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에 계신 분이 눈을 부릅뜨고 보시고 반드시 무서운 심판으로 보복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길이 참아야 하는가? (야고보서 5:7-10)

5: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5: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5:10 형제
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제 야고보는 불의한 압제자들에게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준다. 여기서 길이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길이 참아야 하는가?

1. 길이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음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감당해야 할 마음의 태도이다. 또한 그 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길이 참아야 한다. 우리가 참아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길이 참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고 말한다.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흠어져 있는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불행이 아니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참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을 참을 수 있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인내할 수 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내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고난 가운데 많은 인내를 배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더욱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참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 5:4-5). 여기서 연단은 인격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인내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인내하시라. 성령님이 당신의 인격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2. 왜 길이 참아야 하는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 주의 강림을 내다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참아야 한다. 이와 같은 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참으면 반드시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다 풀어 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을 소망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 강림이란 무엇을 가리킨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악을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독특한 강림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30년 후에 쓰여 졌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의 최후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을 때였다. 크리소스톰과 오이쿠메니우스에 따르면 요한복음 21: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가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까닭없이 선한 사람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쓸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참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볼 때가 반드시 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5:9). 심판 주 되신 예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가? 반드시 주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둘째,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벧후 1:6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였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참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재림의 소망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그가 세상 나라에 속했더라면 그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36).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2중 시민권이 있는 것이다. 그

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태복음 22:15-22)라고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많은 고통은 이념의 갈등 구조 가운데 평화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교회가 집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원리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교회가 평화를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중심에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기득권 세력과 합작한, 그들이 타도해야 할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이 큰 고통이다.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어느 편에 선 것은 자유이다. 그것을 탓할 사람은 없다. 이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자유이다. 40년 전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목사님과 밤을 세우면서 토론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목사님은 전두환이 광주 사태를 일으킨 것은 애국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나는 도대체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토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싸움 수준의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날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하!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구나 하고 그 목사님을 친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50년이 넘도록 가장 가까운 친구 가운데도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친구가 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시대의 인식이 너무 다르다. 그러나 그는 나의 몇 손가락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중의 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세상 가치관에 치우쳐 좌우의 양진영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세상 정부와 같은 이 땅에 속한 기관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관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항상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뿐 아니라 교회 내에 믿음이 약한 영혼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너희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야고보서 5:13). 이 말씀에서 병든 자는 육체적인 병든 자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어 영적으로 강한 장로들의 기도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존 맥아더는 설교했다. 이처럼 세상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이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엉뚱한데 힘을 다 소진하고 있다. 어느 아나운서의 멘트가 생각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삭막하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갈증을 전혀 채우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교회는 외형은 커가지만 영적인 힘은 너무 너무 미약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길이 참아야 하는가? 나는 오늘날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공불락처럼 점점 괴물화 되어 가는 교회가 바른 자리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참아야 하는가? 기도는 실습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이 기도에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씀을 세 번 녹화하게 되었다.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기 위하여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종일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하루였다. 가진 자들과 교회의 횡포에 관한 생각 때문에!! 기도로 버틸 수 있었다.

찬송가 503장 1절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

농부처럼 재림을 소망하며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7b-9)

5:7b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5: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바라며 길이 참으라고 말하면서 3가지 모범을 보여준다. 농부와 선지자들과 욥이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할 인내의 모범이다. 오늘은 농부의 모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길이 참아야 하고 둘째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하고 셋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래 참기 위한 것이다. 오래 참으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다. 무엇인가 참고 소망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모진 면이 있다.

첫째,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은 자연 은총에서도 중요하다. 한 소년공이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식으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으니까 혼자 독학을 했다. 그것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만 공부해야 했다. 그는 잠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졸리면 얼굴에 찔리도록 책상 곳곳에 볼펜을 세워 놓았다. 가슴 닿는 부분에는 압정을 붙여 놓았다. 그래서 얼굴과 가슴 많은 곳에 상처가 났다. 나중에는 압정에 찔린 채 잠을 잤다. 때문에 참고서 곳곳에 핏 지국이 남았다. 그렇게 공부해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거쳐서 법대 장학생이 되었고, 2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후에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굳게 해야 하겠는가?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는 오래 참을 수가 없다.

둘째,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길이 참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원망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 그러므로 원망은 악한 것이다. 참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원망이 많이 있다. 부모 때문에, 나라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원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귀중한 광야훈련을 감당하기 싫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을 원망했다. 바울은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10).

셋째, 오래 참아야 한다. 농부는 참으로 힘든 노동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끊임 없이 잡풀을 제거해야 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하여 농약을 뿌려야 한다. 그 일은 오래 참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오래 참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씨를 부릴 때의 이른 비(11월과 12월)와 수확할 때 늦은 비(3월과 4월)를 하나님이 주신다. 농부는 이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둔다. 농부가 이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농작물을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지혜로운 농부는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믿고 열심히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 없이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오래 참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농부가 열매를 맺는 기쁨보다도 우리가 재림시에 맺을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 재림을 소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으며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구원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두는 일처럼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없다. 정말 마음을 굳게 해야 하고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오랜 참음이 필요한지 모른다. 말 몇 마디의 충고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없다.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라디아서 4: 19).

우리는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남편, 아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사랑과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른다. 정말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얼마나 해산의 수고로 한 영혼 영혼을 도와야 하는가? 나는 40여년의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 영혼을 돕다가 오래 참는데 실패를 많이 했다. 많은 실패를 돌이켜 볼 때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 거린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유능한 고등학교 선생님과 성경공부를 했다. 처음에는 아주 즐겁게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나 계속 성경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속이 상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다. 결국 그는 떠나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이고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여 잃게 된 영혼들이 부지기수 많이 있음이 가슴 아프다.

나는 이와 같은 많은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한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자 애를 쓰고 성경 연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보다 한 영혼 영혼에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한다. 말씀을 책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따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는 다룰 수가 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개인 개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보통으로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오래 참으면서 말씀 연구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많이 본다.

이런 일도 있었다. 성도 가운데 교사 부부가 있었다. 부인은 아주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곤 했었다.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앓 허리가 나았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 된 분은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노름에 빠진 것이었다. 주말만 되면 밤을 새우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을 나가 “바다이야기”나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돌아 다니며 며칠 혹은 몇 주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몸도 망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여 아마 아파트 한채는 잃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처럼 심한 노름에 빠진 사람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런 문제 해결은 이혼만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인의 눈물 어린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남편이 온전히 변화를 받은 것이다. 나 역시 수 없이 그를 심방했고 말씀과 기도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를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농부와 같이 굳은 믿음과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도울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빚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재림을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게으른 농부가 추수 때 추수할 곡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는 농부가 오래 참으면서 열매를 맺듯이 주님을 만날 때 보여 드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교회만 잘 다니고 헌금만 잘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주님께 내놓을 만한 영혼 추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쫓정이만 모아 놓은 교회가 되지 말고 알곡이 가득 찬 교회로서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붙들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지금 어떤 영혼을 붙들고 오래 참으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

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가고 있는가?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가고 있는가? 당신의 교회에 당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의 모임에서 어떤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가도록 돕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 가도록 당신은 어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삶이 농부처럼 오래 참고 굳은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5

선지자들과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5:10-11)

"

5: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5: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

지난 과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농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엔 인내의 본으로 선지자들과 욥을 예로 들고 있다.

1. 선지자들의 모범을 배우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5:10).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책망한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함으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원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내려가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고 그 땅에 머물러 받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예레미야 27:11).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섬길 수 있느냐 하고 절대로 바벨론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바른 말을 한 예레미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또한 백성들 역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선지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주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이사야 30:10).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귀에 즐거운 말만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디모데후서 4:3-4).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 미가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고,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갇혔으며 이사야는 톱으로 켜를 당했다. 스가라는 죽임을

당했고,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기도 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길이 참아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가장 명예로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눈에 띈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이런 삶이 바로 선지자들이 보여 준 본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모범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백 마디의 이론보다 한가지 분명한 모범적인 행동은 우리가 배우기에 훨씬 좋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 따를 수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모범을 보여 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다. 교회는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른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목사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모범을 보일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본을 따를 것이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회에서 정직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볼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도의 모범, 말씀 사랑하는 모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범 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많이 받아도 그대로 살 순 없지만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모범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유산이다. 이 야고보서 강해의 주제는 “삶으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정으로 우리는 삶으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 주는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욥의 인내를 배우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5:11). 성경에서 언급된 고난의 인물들 가운데서 욥과 필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는 성공적인 농부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옥 불과 같은 재난을 당하였다.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식들을 다 잃었다. 몸은 욕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와 같은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아내의 비난, 그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비난이 더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위로를 해 주기는커녕 찾아와서 너는 죄 때문에 실패자라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 중에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친구란 자들이 와서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꾸짖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욥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들어도 항상 너그럽게 참았는가? 아니다. 그는 분노를 발하기도 했고, 폭언을 하기도 했고, 회의와 갈등 가운데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욥의 인내는 불행을 견디어 냈고, 불행 속에서 불굴의 정신을 발휘했다. 물론 그는 때로는 의문을 제기했고 강한 반발심도 드러냈지만 믿음의 불꽃이 그 마음에서 꺼진 적이 없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극한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다. 우리의 자원으로는 인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빌립보서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레미야애가 3:22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담대히 악에서 맞서 싸우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인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인내가 가져올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고

통의 정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

야고보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복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재림을 내다보며 사는 삶이란 이와 같이 오래 참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인내가 부족하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재림시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 오래 참음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상급을 받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 농부처럼 오래 참아야 한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선지자처럼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진리를 외치면서 오래 참아야 한다. 욥처럼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참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아야 한다. 그리할 때 재림시에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성공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오래 참으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자.

6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가? (야고보서 5:2)

5: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본문에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혀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만 딱 따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주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라는 말만 톱 떼어서 생각하면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의 뜻은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하는 맹세, 지킬 의사가 없이 그냥 가볍게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맹세와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맹세에 대해서 가르쳤다. 유대인들은 성전, 재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지켜도 된다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23: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마태복음 23: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금이나 예물을 탐하는 탐욕적이라는 것을 책망하셨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맹세, 하늘과 땅으로 하는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맹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예 지킬 의사가 없는 맹세,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맹세는 거짓된 맹세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맹세는 경배의 행위임으로 중요한 경우에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명기 6:13).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맹세를 하지만 실제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없는 사람은 맹세를 아주 쉽게 한다. 맹세를 하고 안지키면 큰 일 날 것처럼

럼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맹세를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도 “정죄 받음을 면하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맹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킬 의사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맹세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의 좋은 예를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6:33 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장담을 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리스인의 삶에 있어서 진실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믿음이 진실해야 구원을 받고 사랑이 진실해야 사랑이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한번 말할 때 그것이 종이에 쓰고 도장을 찍는 것 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매우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맹세란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맹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맹세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은 맹세 자체를 결코 금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의 종을 보낼 때 맹세하게 했다(창세기 24:2-9).

하나님도 맹세하셨다.

예레미야 44:2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창세기 22: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셨다.

마태복음 26: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다툼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맹세를 권하기도 한다.

출애굽기 22: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히브리서 6: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또한 성경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 곳이 많이 있다.

전도서 5: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민수기 30: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맹세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맹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다시 말하면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야 한다. 평소에도 언제나 예라고 했으면 항상 예하면서 살아야 하고 “아니요”라고 했으면 항상 아니요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평소에도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서 한번 “예” 했으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한번 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예라고 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사람들이 믿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예와 아니요를 잘하는가? 그러나 그대로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두가지 굳은 맹세는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그 맹세대로 살고자 하는 한 두 가지 맹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맹세를 했으면 항상 그 맹세를 기억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고린도전서 2:2). 그리고 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 세 가지 결심(맹세)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심(맹세)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나는 대학 시절 수양회에서 이원설 박사와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분이 어린 시절 월남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증하면서 이 말씀이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해주었다. 당시 나는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생을 살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 말씀대로 삶으로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둘째는 에스라의 삶을 살기로 맹세했다.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에스라 7:10).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래서 말씀 연구와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증거되도록 기도를 많이 한다. 지금도 은퇴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고 유튜브로 말씀 강해를 하고 있다.

셋째는 사도행전 1:8 말씀을 이루기로 맹세를 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이 말씀에 근거하여 캠퍼스 복음화와 성서 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ESF를 세웠고 온마음교회를 세웠다. 이 두 단체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을 전도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에 유학하러 온 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전도하기 위하여 성경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또한 나와 같은 비전을 같이 할 동역자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요 맹세이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일생을 살기를 간곡히 권면한다. -

7

당신의 개인 기도 생활을 어떠한가? (야고보서 5:13)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간은 살아 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도서 7:14).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도록 이 두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고 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곤고한 날에는 지나치게 낙심하여 좌절하기 쉽고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여 넘어지기 쉽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말

하는 기도나 찬송 둘 다 기도의 일종이다. 우리는 찬송가를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항상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2-13).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개인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에는 합심기도 통성기도 일대일기도 대표기도 등의 기도의 종류가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인기도다. 개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대화가 없이는 이 모든 종류의 기도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일 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편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공동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드러낼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만남과 교제 가운데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지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그런 관계가 깊어지면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나 많은 사람 앞에서의 대표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다.

예수님도 개인기도를 주로 많이 하셨지만 무리들 앞에서도 기도하셨다. 무리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1:41-42).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 내신 것이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 앞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놓고 기도하셨을 때 5천명이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개인기도가 있을 때 합심기도나 대표기도나 일대일 기도 혹은 통성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

개인기도가 기도의 기본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단 둘이만 만난 기도가 기도의 기본이 된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기도의 인물들은 개인기도를 했다. 예수님도 주로 개인기도를 많이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주로 사용하신 기도처였다. 이른 새벽 혹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때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개인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다. 그들이 한 시간도 개인기도 시간을 갖지 못함을 책망하셨다. 아브라함 모세 등도 개인기도를 많이 했다. 다윗의 경우도 그의 개인기도가 시편이라는 성경이 되기도 했다. 다니엘도 주로 개인기도를 많이 했다. 허드슨 테일러나 죠지 무려도 개인기도를 많이 했다. 죠지 무려는 그의 은밀한 개인기도 제목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친밀한 영적인 동역자인 자기 아내에게도 20년 이상 알리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개인기도를 철저히 하는 이가 많지 않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두 시간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인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는 처음 할 때는 아주 쉬운 일이나 갈수록 기도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불굴의 인내로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계시록 3:20이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궁핍 속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과 같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의 어려움을 지워 버리기 위해 그의 힘을 사용하는 일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궁핍한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우리 고통 속에 가까이 오시게 하며 그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처리하시도록 부탁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일이므로 어떠한 힘이 필요하지 않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뱀만 바라보면 된다. 뱀을 높이 매달라 놓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가 있었다. 누구나 있는 그 자리에서 뱀만 바라보면 순식간에 뱀의 독에서 풀려 나와 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셔 들이는 것과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소망만 가져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

마치 폐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저절로 폐병이 낫는 것과 같다. 일광욕이 왜 폐병에 효과가 있는지 알 필요도 없다. 의사의 말대로 햇볕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누워만 있으면 된다. 특별한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이 누워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누워있기 싫다고 일어서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반항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만 있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죄 사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개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생각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그것이 기도이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 마음의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된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하박국 2:1).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도 좋은 기도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배우다 보면 조금씩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

우리가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칠 때도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늘고 그 운동이 재미가 있고 골프 치거나 테니스 대회구경도 재미있다. 기도를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응답을 경험해보는 일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즐겁고 보람이 있게 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야고보서 5:13). 고난 당하든지 행복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배워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다.

8

교회 장로들의 중요 사역 (야고보서 5:14-16)

5: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5:14). 이 말씀에서 병든 자가 누구를 청하라고 했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다. 장로들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다. 이 말씀에서, “병든자”, “장로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 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교회는 병든 자들이 항상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고 말한다. 여기서 병든 자란 육체적으로 특별한 병이 든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렇다면 의사한테 가든지 특별한 치유 사역자를 불러야지 왜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을까? 존 맥아더 목사는 여기 병든자는 단지 육체적인 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병든 자란 많은 핏박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야고보서의 독자들 가운데 믿음이 다 소진되어 영적으로 무력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실 서신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연약한 신자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14장 1절과 2절, 로마서 14장 21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로 사용되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1절과 12절에서도 영적인 약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무력함, 영적 약함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는 성격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많이 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스스로 기도할 힘도 없고, 더 이상 악한 세상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을 여기서 병든 자라고 말한 것이다. 요즈음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들어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영적인 갈증을 채울 방법이 없다. 직장에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위로 받을 길이 없다. 여러가지 가정문제 사회문제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지만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고 영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능력있고 충만한 장로들의 기도사역이 필요하다.

2. 장로들의 사역이 매우 필요하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큰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이란 영적으로 충만해서 무력한 양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경에 말한 장로들은 감독자들, 목사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그들의 자격이 나온다. 그들은 경건하다. 그들은 영적으로 강력하다. 영적으로 승리한 자,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의 힘을 빌리라는 것이다. 장로들은 능력있는 기도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5),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 그들은 기도의 전문가들이다. 사도행전 6:4에서 사도들은 자기들의 주 업무가 기도라는 것을 천명했다. 교회 행정이나 예산을 관리하는 것, 구제, 사회사업등은 다 집사를 택하여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했다. 전무한다는 것은 그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다. 전무한다는 것은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 업무는 기도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 일은 오늘날 목사들이 해야할 임무이다.

기도하되 기름을 발라 주라고 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5:14).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상처난 영혼을 사랑의 기름을 발라 상처를 싸매주라는 뜻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영적으로 상처가 많은 성도들에게는 먼저 기름을 발라 주어야 한다. 그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아픔을 감싸주어야 한다.

교회는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장로들의 사랑과 기도로 변화되고 힘을 얻어야 한다.

내가 섬겼던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 그는 젊은 날 교회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남자교사였다. 학교에 근무한 한 여선생님의 소개로 심방을 갔다. 시력이 아주 안 좋아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닦지 않아 먼지가 가득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너무 수줍어 나의 얼굴을 바로 보지도 못했다. 교회를 나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건강이 너무 나빠 주 일에는 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다른 교회에 나가다 상처를 받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 그리고 퇴근하면 항상 하숙집에서 누워만 있었다. 나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심방을 가서 기도해 주었다. 얼마가 지나자 조금 마음 문을 열고 매주는 교회 나갈 수 없고 한 달에 두 번은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다음에는 주일만큼은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다음에는 십일조만큼은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계속 자라 아주 신실한 자매와 결혼하도록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그 자매가 머리 술이 적다고 거절했지만 설득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 장로까지 되었다. 그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둘은 대학교수가 되었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었다. 개척교회라 교회 건물을 자주 옮겨 다녔는데 항상 교회를 따라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같이 갔다. 이사를 간 곳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큰 부자가 되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를 항상 빠지지 않고 교회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주고 기도해 주는 장로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다. 영적으로 매우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장로, 목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받아 건전하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연약한 성도

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문제다. 오늘날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장로들조차도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당할 영적인 힘이 없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연약한 영혼을, 상처 많은 영혼을 도울 수가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무한 절대적인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야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설교를 잘하는 분은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교사도 아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도 아니다. 설교를 잘하는 비결은 간단하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되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 전해야 한다. 기도의 땀을 많이 흘린 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듣고 양떼들은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며 강한 성도가 된다.

나는 죠지 물리가 고아 사업의 성공자라고만 알았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 보니 그는 목사였다. 목사로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다 보니 연약한 성도들을 돕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연약한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 본문을 수없이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섬기는 연약한 양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아무리 주석 책을 많이 읽고,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책상 앞에서 연구를 많이 해도 기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내가 섬기는 연약한 양떼들을 깊이 알고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연약한 양떼들을 도울 수가 없다.

데이비 브레너드도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인디언들의 아버지로 존경받은 분이였다. 그는 항상 회개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었다.

오늘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들, 곧 목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나는 후배 목사들을 만나면 당신은 하루 몇 시간 개인기도를 합니까 물어본다. 이것은 실례가 되는 질문인지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는다. 그러면 대부분 새벽기도, 심방등 바빠 개인 기도를 거의 못한다고 하는 분이 많다. 그러면 나도 목회하면서 개인 기도를 많이 못했다고 위로해 준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개인기도를 많이 하라고 격려한다.

목사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기도가 없이는 양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나는 목사는 적어도 하루 2시간은 개인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사들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9

시대를 살린 엘리야의 기도 (야고보서 5:17-18)

5: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5: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인물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기도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의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이 담긴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앞에서도 장로들의 기도와 개인기도, 설교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큰 모범이 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해 주고 있다. 우리는 첫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 둘째, 엘리야의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훈련과정, 셋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영왕기서에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배가 고팠고(열왕기상 17:11), 두려워 했으며(열왕기상 19:3), 피곤했다(열왕기상 19:4). 야고보는 왜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접할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들과 같은 모범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도록 초대한다.

2. 엘리야의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훈련과정

엘리야가 아무런 훈련이 없이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그가 이와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많은 훈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왕과 왕후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시대였다.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왕후는 왕을 온전히 우상숭배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숭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감히 누가 왕 앞에 나가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나. 그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였다. 그런데 엘리야는 감히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왕의

죄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열왕기상 17:1).

그리고 그는 3년반 동안 숨어 지냈다. 그동안 그는 큰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 시내가 마르기까지 강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을 먹으며 지냈다. 가난한 과부에게 얹혀 살았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다.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몰살시켰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제목 하나하나를 나열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많은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 생명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삶을 배웠다. 불쌍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맛보았고, 단신으로 수백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능력의 사람이었다.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다(열왕기상 18:39).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했고 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다.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단순한 기도도 있지만,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할만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수많은 날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오늘의 시대에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너무 필요한 시대이다.

3.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다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열왕기상 18:42-48). 그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된 것은 우상숭배에 빠진 왕과 왕후 때문에 극한 고통중에 있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왕후 이세벨의 죄는 우상에 깊이 빠져 말로 다할 수 없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백성들에게 끼친 잔인함은 결국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열왕기하 9:30-37에 그녀의 심판의 기록이 나온다. 이세벨이 주는 밥을 먹고 살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들어 창밖으로 내던진지 몇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시체를 찾았을 때 이미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고 두개골과 손발만 남은 상태였다. 실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엘리야의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의 선한 싸움은 간절한 기도로 나타난다. 그의 기도로 3년 반동안의 가뭄이 해결되고 땅이 열매를 맺어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냈다. 오늘의 시대는 영적인 가뭄이 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교회 개척은 꿈도 못꾸고 문닫는 교회가 1년에 3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신학교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심한 경우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도 영적인 기갈을 채울 수 없어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견디다 못해 교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교회가 심한 영적인 가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인 극한 가뭄에 단비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대에 기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생

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시대를 큰 위기의 시대로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만약 목회자들 까지도 기도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직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거의 5개월 동안 우리는 아주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린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기도 모임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간절함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다.

그 기도 제목은 찬용이라는 갓 태어난 아기였다. 찬용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다른 문제가 생겨 산소호흡기를 끼고 인큐베이터에 갇혀 있게 되었다. 우리는 기도 모임 때마다 새로 업데이트 된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물며 찬용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는 거의 필사적이었다. 찬용이 할머니는 말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일은 일생 처음이라고까지 말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지 모른다. 기도하는 순간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원하던 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안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찬용이 엄마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너무 애절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귀한 편지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자 하늘나라에서의 첫 소식인 우리 찬용이 소식 전합니다. 찬용이는 생후 143

일, 오늘 2022년 3월 15일 새벽 5:30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찬용이와 오래동안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했고, 찬용이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 품에 안긴 채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찬용이를 위해 그동안 기도해주신 많은 중보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기 일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신 분들, 금식하며 기도해주신 분들, 찬용이 소식을 다른 중보자팀과 공유하며 기도해주신 분들, 찬용이 기도 제목을 대신 작성해 방송/전파 기도 요청하신 분들,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에서 기도해주셨던 수많은 외국인 분들과 친구들... 찬용이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저희는 기도의 빛을 많이 졌습니다. 비록 저희가 간절히 원했던 대로 찬용이는 회복하지 않았고, 저희가 바랬던 기적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여정 가운데 저희 부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주변에서 겪는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참 소중한 매일 편안하게 숨쉬며 살아있는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아이에게 참 고맙고, 이 귀한 생명을 잠시나마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기도의 끈을 대신 이어가 주신 중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제목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는다.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10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19-20)

5: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5: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라고 하였다.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하였고, 14절에서는 너희중에 병든자가 있느냐고 하였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고난당한자가 있을 수 있고, 병든 자 - 곧 연약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고,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고난 당한 자는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

어야 한다. 그러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을 살펴 보는데 있어서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둘째,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누가 그들을 진리에서 돌아오게 해야 하는가?

1.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5:19). “너희 중에”라는 말은 교회 내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의미한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복음의 진리를 떠난 자이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다. 또한 20 절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 라고 하였다. 우리는 죄인이란 거짓말하고 도적질 하고 폭력을 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사회에서 죄라고 말하는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얌전하고 친절하고 메너가 좋고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한다. 죄란 과녁에 화살을 맞히지 못했던 데서 유래된 말로써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쉽게 God’s way를 가지 않고 My way를 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복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한 사람이다. 자기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거부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거절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지 않는 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인데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지 않고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이 사는 것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며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나 가정, 직장, 사회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다.

2.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5:20)라고 했다. 여기서 사망이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의미한다. 성경은 지옥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 특히 마태복음에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마태복음 5장 18장과 23장에서 많이 나온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나온다. 특히 계시록 21:8 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요한계시록 21:8).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 심판이 있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다(히브리서 9:27). 그 지옥은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영원히 그 고통중에 살게 되는 것이다.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영원히 그 고통 중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잘 믿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지옥이 있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막연히 나 예수 믿으니까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라고 믿을 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그런 지옥에 빠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안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한다.

둘째,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변을 보고 조그마한 삽으로 흙을 파서 덮는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피로 죄를 덮어 깨끗이 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것인데 죄가 덮어짐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이 의롭게 된다는 의미이다. 죄가 있으면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시편 66:18). 그러므로 죄를 덮게 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공급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로마서 8:32).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얻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은퇴한 후

가장 기쁜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나눌 때이다.

3. 누가 그들을 진리에서 돌아오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whoever)라고 했다. 목사, 전도사, 장로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라면 누구든지 이런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 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복음에서 떠나 미혹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에스겔서 3:18-19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 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에스겔 3:18-19). 그러나 반 면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3) 라고 하였다.

교회는 복음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복음을 깊이 알고 더 배워 나가는 것이다. 존 파이퍼는 복음은 첫째는 소식이며 그 다음은 교리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의 교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풍성하고 놀라운 소식이 가득 담겨 있으며 따라서 세상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물 상자처럼 개봉하고 그 속에 보화를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리는 이 보화에 대한 묘사다. 교리는 이러한 보화의 진정한 가치를 기술하며, 이러한 보화가 왜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교리는 복음이라는 다이아몬드가 값싼 수정(crystal)으로 여겨져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준다. 교리는 복음이라는 보화를 약탈자들, 즉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을 다른 돌과 바꾸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약탈자들로부터 지켜 준다. 교리는 상자 밑바닥에 묻혀 있는 오래된 보석을 닦는다. 교리는 복음의 보석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보이도록 주홍 빛 융단 위에 가지런히 간직한다.”(하나님이 복음이다. P.25).

그래서 교회는 교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알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면 전도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오늘로서 야고보서 강해를 마쳤다. 나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를 배우면 기도가 즐겁다. 찬송가 저자가 말한 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그에 못지 않게 기도를 많이 가르쳐야 한다.

어제는 신학교를 은퇴한 교수가 기도를 배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간증을 해주었다. 나 역시 기도를 배우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고 인내와 연습으로 기도를 배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참으로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내가 야고보서를 마치고 갖게 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사도행전 6:4절 말씀대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기를 바라는 것이다. 목사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2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3시간 이상은 말씀 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이 기도제와 같이 힘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